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어 부사 ‘이미’류와 ‘아직’류의 의미 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박 혜 승

<국문초록>

한국어 부사 ‘이미’류와 ‘아직’류의 의미 연구

박 혜 승

본고는 한국어 부사 ‘이미’와 ‘아직’의 의미를 밝히고, 더불어 ‘이미’와 유의관계에 있는 ‘벌써’, ‘진작’, 그리고 ‘아직’과 유의관계에 있는 ‘여전히’, ‘여태’의 의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간 부사에 관한 연구는 시제와 상 범중 체계 안에서 개별 시간 부사의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유의 관계에 있는 시간 부사들의 체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이미’와 유의관계에 있는 부사들을 ‘이미’류, ‘아직’과 유의관계에 있는 부사들을 ‘아직’류로 범주화 하여 이들의 의미가 문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언어학에서 ‘시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시제와 상 범주라는 두 의미 범주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시간 부사에 관한 연구 또한 시제 관련 시간 부사와 상 관련 시간 부사의 범주에서 논의된 것이 일반적이다.

의미와 기능적 측면에서 ‘이미’류는 ‘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가진 시간 부사로 알려져 왔다. 반면에 ‘아직’류는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가진 부사로 정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각 부사들의 의미 차이를 기술함에 있어서 이들이 가진 상적 속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류와 ‘아직’류가 상적 속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속성으로 ‘감정 양태’와 관련된 속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류와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설정하고 각 부사들의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이미’류 시간 부사에서 ‘이미’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하여 중립적 판단과 단정이라는 양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달리 ‘벌써’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의외와 놀라움, ‘진작’은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양태적 속성을 나타냈다.

한편 ‘아직’류 시간 부사에서 ‘아직’은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립적 판단과 단정을, ‘여전히’는 긍정적 기대와 소망을 드러냈다. 반면에 ‘여태’는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원망이라는 양태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사의 의미는 다양하며 그 의미는 변화한다. 상의 범주에서만 논의 되었던 ‘이미’류와 ‘아직’류는 앞으로 상적 속성뿐만 아니라 감정 양태적 속성의 차원에서 좀 더 정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부사, 상, 양태, 시간 부사, 상부사, 감정 양태, 평가 양태

학 번: 2014-20079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2. 선행 연구 ····· 3
1.3. 논의의 구성 ····· 6

2. 기본 논의 ····· 8
2.1. 시간 부사와 상 ····· 8
2.1.1. 상의 정의와 체계 ····· 8
2.1.2.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 ····· 10
2.2. 시간 부사와 양태 ····· 14
2.2.1. 양태의 정의와 체계 ····· 14
2.2.2. 시간 부사의 양태적 속성 ····· 17
2.3. ‘이미’류와 ‘아직’류의 범주화 ····· 20
2.3.1. ‘이미’와 ‘아직’의 관계 ····· 20
2.3.2. ‘이미’류와 ‘아직’류의 설정 ····· 22

3. ‘이미’류와 ‘아직’류의 시상 문법 형태 공기 ····· 29
3.1. ‘이미’류와 시상 문법 형태 공기 ····· 29
3.1.1. ‘이미’류와 시제 문법 형태 공기 ····· 30
3.1.2. ‘이미’류와 상 문법 형태 공기 ····· 37
3.2. ‘아직’류와 시상 문법 형태 공기 ····· 40
3.2.1. ‘아직’류와 시제 문법 형태 공기 ····· 40
3.2.2. ‘아직’류와 상 문법 형태 공기 ····· 45

3.3. 소결 ····· 47

4. ‘이미’류와 ‘아직’류의 양태적 속성 ····· 48
4.1. 감정 양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8
4.2. ‘이미’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 ····· 50
4.2.1. ‘이미’: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중립적 판단과 단정 ····· 51
4.2.2. ‘벌써’: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의외와 놀라움 ····· 53
4.2.3. ‘진작’: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 56
4.3.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 ····· 59
4.3.1. ‘아직’: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립적 판단과 단정 ····· 61
4.3.2. ‘여전히’: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소망 ····· 63
4.3.3. ‘여태’: 사건 지속 가능성 대한 부정적 반응과 원망 ····· 65
4.4. 소결 ····· 66

5. 결론 ····· 68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언어학에서 ‘시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시제와 상 범주 아래에서 진행되어왔다. 시간 부사 또한 시제와 상을 중심으로 각각 시제 또는 상 관련 부사로 분류되어 그 체계를 형성한 것이 일반적인 연구 방법이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시간 부사 특히 상적 속성을 가진 시간 부사들 중에서 그들의 의미 차이 기술이 양태적 속성으로 설명 가능한 부사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국어의 시간 부사 중에서 이른바 상적 속성을 가진 부사(aspectual adverbs)인 ‘이미’와 ‘아직’ 그리고 이들과 유의관계에 있는 ‘벌써’, ‘진작’, ‘여전히’, ‘여태’의 의미를 시제 · 상 문법 형태 공기 양상으로 살펴보고, 이로 설명되지 않는 각 부사들의 의미 차이를 양태적 속성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 ‘아직’, ‘여전히’, ‘여태’이다. ‘이미’, ‘벌써’, ‘진작’과 ‘아직’, ‘여전히’, ‘여태’는 소위 ‘완료’와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가진 시간 부사로 알려져 있다. 본고는 이 부사들이 문장 안에서 ‘완료’라는 상적 속성뿐만 아니라 ‘양태’라는 다른 차원의 의미로 실현될 때 그 의미 차이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1) ㄱ. 민수는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다.
ㄴ. 민수는 벌써 대학생이 되어 있다.
ㄷ. 민수는 진작 대학생이 되어 있다.
ㄹ. 민호는 아직 밖에 있다.
ㅁ. 민호는 여전히 밖에 있다.
ㅂ. 민호는 여태 밖에 있다.

(1)은 ‘민수는 대학생이 되어 있다.’ ‘민호는 밖에 있다’라는 사건에 각각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과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한 문장이다. (1ㄱ-ㄷ)에서 ‘이미, 벌써, 진작’은 ‘완료’의 속성을 지닌 상 문법 형태 ‘-어 있-’과 공기하고 있다. 이 때 세 부사가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이유는 ‘-어 있-’과 세 부사의 ‘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1ㄹ-ㅂ)에서 ‘아직’, ‘여전히’, ‘여태’는 민호가 밖에 있는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미완료’의 상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 시간 부사 모두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그런데 같은 시제 또는 상 문법 형태를 지닌 문장에서 위와 같이 공통된 의미 해석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ㄱ. ?이미 봄이 온다.
ㄴ. 벌써 봄이 온다.
ㄷ. *진작 봄이 온다.
ㄹ. 민정이는 ?아직 예쁘다.
ㅁ. 민정이는 여전히 예쁘다.
ㅂ. 민정이는 ?여태 예쁘다.

(2)는 각각 ‘봄이 온다.’, ‘민정이는 예쁘다.’라는 명제에 각각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과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한 문장이다. 그런데 (2)는 (1)과 달리 같은 시제 문법 형태의 문장에서 세 부사가 다른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ㄱ-ㄷ)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의미를 실현하는 부사는 ‘벌써’다. 이에 반해 ‘이미’는 ‘벌써’보다 그 해석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며, ‘진작’은 매우 어색한 의미로 실현 된다. 이 때 동일 문법 형태가 결합된 문장에서 같은 상적 속성을 지닌 ‘이미’, ‘벌써’, ‘진작’ 중에서 ‘벌써’만이 해석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세 부사의 상적 속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2ㄹ-ㅂ)의 문장에서는 ‘그녀는 예쁘다.’라는 명제와 결합한 ‘아직’, ‘여전히’, ‘여태’ 중에서 ‘여전히’만 자연스러운 의미로 실현되고 있다. ‘아직’과 ‘여태’는 두 부사 모두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문장과 자연스럽

게 공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문장 해석이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전히’는 ‘아직, 여태’와 달리 문장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세 부사가 가진 상적 속성으로 왜 ‘여전히’만 의미 해석이 자연스러운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여섯 개의 부사를 ‘사건 완료 시점’ 중심의 ‘이미류’, ‘사건 지속 가능성’ 중심의 ‘아직류’라는 두 부사류로 설정한다. ‘이미’류와 ‘아직’류가 문장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실현되는 이유는 상적 속성뿐만 아니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즉 양태적 속성을 가진 영역이 존재하며, 각 부사들의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그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시간 부사의 정의에 대하여 최현배(1961)에서는 ‘때 어찌씨’, 즉 ‘그 일이 드러남을 때로써 꾸미는 어찌씨’로 명명하였다. 한편 권선옥(1985)에서는 ‘발화 문장에서 의미상 시간을 나타내는 말, 문법적 범주로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통어적 단위’로 시간 부사를 정의하였다. 최현배(1961)에서 시간 부사의 어휘적 의미만 언급했다면, 권선옥(1985)에서는 시간 부사가 ‘부사어’로서의 문법적 기능까지 담당한다는 점을 기술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시간 부사에 대한 정의는 서정수(1995)에서 좀 더 다듬어진 모습을 보인다. 그는 ‘시간과 관련되는 낱말로서 문장이나 절 또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시간 부사라고 불렀다. 위 세 정의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시간 부사를 ‘발화 상황에서 시간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이나 절 또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어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부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1) 시간 부사 분류체계연구, 2) 개별 시간 부사 어휘 의미 연구, 3) 유의 또는 반의 관계 시간 부사들의 의미 비교 · 대조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간 부사의 분류 체계에 관한 논의로 최현배(1937/1971), 서정수(1978/2005), 김선희(1987), 홍종선(1991), 임채훈(2003) 등은 현대국어 시간 부

사 체계를, 이주행(1989), 민현식(1989) 등에서는 중세국어 시간 부사 체계를 범주화하였다. 시간 부사의 분류 체계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바로 분류 체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 부사의 분류를 각각의 의미 특성으로 나누고, 그 의미 특성 중 시간 부사가 지니고 있는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을 구분한 김선희(1987)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시간어의 의미 특성을 '순서', '양태', '상', '지속 과정과 간격'으로 구분하였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시간 부사들은 김선희(1987)에서 다음 <표1>과 같이 분류되었다.

<표 1> 김선희(1987):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 '아직'의 의미

시간 부사	의미
이미	완료상
벌써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예상의 기대치를 정해 놓고 그 기대치보다 빠른 시점'
진작	'반드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화자의 때늦은 바람 또는 가정'
아직	미완료상

김선희(1987)에서는 시간 부사의 의미 특성으로 '이미'와 '아직'을 각각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벌써'와 '진작'을 '양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김선희(1987)에서 '이미'와 '아직'이 지니고 있는 상적 의미 속성에만 주목했다면, 본고에서는 '이미'와 '아직'이 상적 속성 외에 양태적 속성도 가지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완료'와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은 '이미'와 '아직' 뿐만 아니라 '벌써'와 '진작'도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표1>은 각 부사들의 상적 속성으로 1차 분류 기준을 삼고, 2차 분류로 부사들의 양태적 속성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선희(1987)에서는 '여전히'와 '여태'에 관한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직'이 지니고 있는 양태적 속성의 차이를 '여전히', '여태'와 비교하여 밝힐 것이다.

한편 개별 시간 부사 어휘 의미 연구에 관한 논의로는 이원표(1992), 이지영(2010) 등이 있고, 유의관계 또는 반의관계에 있는 시간 부사들의 의미 비교· 대조 연구로는 김진수(1985), 임서현(1999), 염재일(2014) 등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임서현(1999)와 염재일(2014)에서는 시간 부사가 지닌 상적 속성과 화용론적 특성이 시간 부사가 지닌 주요 의미적 특성임을 밝히고 있다. 먼저 임서현(1999)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의미 차이를 쌍대성 이론(duality theory)으로 설명하고, '벌써'와의 관계를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2> 임서현(1999):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아직'의 의미

시간 부사	의미
이미	사태가 일어나(완료되어) 더 이상 돌이키거나 손쓰기 어려움
벌써	사태의 발생이 생각보다 빠름/일어난 일의 반대 상태에 대한 미련(바람)
아직	'아직','아직도','아직은'의 화용론적 의미 구별(낙관, 유감 등)

<표 2>에서 알 수 있는 '이미'와 '아직'은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돌이키거나 손쓰기 어려움', '낙관, 유감' 등의 다소 부정적인 의미 특성을 지닌다고 기술하고 있다. '벌써' 역시 완료된 사건에 대한 미련이나 바람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임서현(1999)에서 지적한 세 부사의 의미 특성이 양태적 속성의 일부라고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양태적 속성은 '부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설명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벌써' 또한 '미련'이나 '바램'이라는 표현보다 더 감정의 정도성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염재일(2014)에서는 '이미', '벌써', '아직'을 '상부사(aspectual adverb)'로 설정한 후 각 부사들의 의미 특성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그가 기술한 세 시간 부사의 의미 차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염재일(2014):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아직'의 의미

시간 부사	의미
이미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이 주제시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충족되었다는 것을 말함.
벌써	시간 상 주제시보다 오래 전/화자가 언급되는 상황이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함축이 생김.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이전의 어떤 상황유형에 있다는 것을 주장함.

염재일(2014)에서 다루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의미 특성은 주로 상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다. '벌써'는 이와 다르게 화용론적 맥락에서 화자가 언급되는 상황이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함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 논의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이 가지고 있는 '상적 속성'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벌써'가 화용론적 함축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벌써'라는 시간 부사에 내재되어 있는 양태적 속성이 존재하며, 그 속성이 문장의 의미 해석을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으로 보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에 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 부사 '이미'와 '아직'의 기본 의미 관계를 토대로 '이미'류와 '아직'류로 범주화 하는 과정을 밝힌다.

3장에서는 두 부류로 범주화된 '이미'류와 '아직'류가 각각 시제 문법 형태 '-었-', '-느/Ø-', '-을 것이-'와 상 문법 형태 '-어 있-', '-고 있-'과 공기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각 시간 부사들의 의미 차이가 문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 시간 부사 간의 의미 차이를 시상 문법 형태 공기를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각 부사들의 의미 차이가 양태의 하위 범주인 감정 양태로 설명됨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남은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논의를 정리한다.

2. 기본 논의

본고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시간 부사는 그 의미로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시간 부사와 상, 그리고 시간 부사와 양태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3장의 시상 문법 형태와의 공기와 4장의 감정 양태라는 양태적 속성으로 기술되는 세부적인 논의에 이론적 바탕이 될 것이다.

먼저 2.1절에서는 시간 부사와 상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상의 정의와 체계를 정리하고, 상이 시간 부사의 범주에서 어떤 의미들로 실현되고 작용되는지 체계적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어서 2.2절에서는 시간 부사와 양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양태의 정의와 그 하위 범주 체계를 살펴보고, 시간 부사와 양태적 속성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2.1. 시간 부사와 상

2.1.1. 상의 정의와 체계

'상(aspect)'이라는 술어는 19세기 슬라브어 문법의 'view'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vid'에서 유래한 것이다. 상에 관하여 Comrie(1976: 3)에서는 '상황의 내부적 시간 윤곽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Smith(1997: 1)에서는 시제가 어떤 사건을 시간 선상에 위치시키면 상은 그 상황의 시간적 구조를 분석하면서 해석해 주는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연구에서 상의 하위 범주는 일반적으로 '완결상(perfective)'과 '비완결상(imperfective)'으로 분류되었다.

'완결상'은 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구분 없이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

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비완결상'은 상황의 외부가 아닌 내부 구조에 주의를 기울인다. 비완결상은 다시 '습관상(habitual)'과 '지속상(continuous)'으로, 지속상은 '진행상(progressive)'과 '비진행상(nonprogressive)'으로 하위 범주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며, 언어 유형론적으로 러시아어가 위와 같은 대립이 가장 유표적으로 드러나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

이제 한국어 연구에 적용된 상 이론을 살펴보자. 먼저 상의 정의에 대하여 고영근(2004/2014)에서는 상은 곧 '동작상(aspect)'이며 '어휘 차원의 상(aktionsart)'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 동작상이란 진행, 완료와 같은 동작의 양상이 일정한 형태로 표시되는 현상이며 이것이 곧 상으로 기술되었다. 즉, 고영근(2004/2014)에서 상의 정의는 '진행'과 '완료'라는 동작의 양상을 상의 중심 의미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우창현(2003: 44)에서는 상의 정의를 '상황이 포함하는 내부 시간 구조에 관점상이 결합함으로써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가시화하는 문법 범주'라고 정리하였다. 즉 그는 '관점상(viewpoint)'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을 상의 주요 의미로 다루고 있다.

박진호(2011: 300)에서는 상이란 '사태의 시간적 구조나 전개 양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문법 범주'라고 정의한다. 시제의 주된 기능이 사태를 시간 축 상의 특정 위치에 위치 짓는 것인데 비해, 상은 시간적 위치보다는 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관건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상은 시제와 엄연하게 문법적,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며, 상은 시간의 위치가 아닌 그 상황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이 더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는 범주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상의 하위 범주 설정에 대하여도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먼저 고영근(2004/2014)에서는 상의 하위 범주를 '진행상', '완료상', '예정상'으로 분류하고 진행상에 문법형태로 '-고 있-', 완료상의 문법형태로 '-어 있-', 예정상으로 '-게 되다'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박진호(2011)에서는 진행상의 문법형태라고 알려진 '-고 있-'의 의미를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띈다. 박진호(2011)에서는 '-어 있-'과 '-고 있$_1$-'의 일부 용

법을 결과상으로 보았다. 결과상은 완료상에 비해 문법화의 진전도가 낮은 편이며 동사와의 결합 제약과 의미의 추상화 정도가 낮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태 동사와 결합이 자유로운 '-고 있$_2$-'은 연속상의 요소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진행상이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만 결합 가능하다는 규칙에서 벗어나 문법화가 더 진전되어 동적 술어뿐만 아니라 정적 술어와도 결합이 가능하며, 의미도 더 추상화될 경우 연속상이라고 부른다는 Comrie(1976)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한편 최근 문숙영(2014)에서는 한국어에서 상의 개념과 각 범주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완결상(perfective)'과 '비완결상(imperfective)'의 범주를 적용하려면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대립 및 그 의미 기능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완결상과 비완결상이 구조적으로 대립을 이루지 않는 언어의 경우, 비완결상의 일부 의미를 담당하는 상들을 비완결상으로 묶는 일은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동안 비완결상의 하위 범주로 다루어졌던 '진행상', '기동상', '결과상' 등을 '국면상(phasal aspect)'이라는 새로운 상위 범주 아래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상의 개념 및 상 범주들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로 통일된 유형을 따르고 있지 않다. 즉, 아직까지도 상에 대한 개념과 범주화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 문법형태로 인식되는 문법형태는 결과 또는 완료상의 '-어 있-'과 진행상의 '-고 있-'이다.

본고에서는 상 문법형태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어 있-'과 '-고 있-' 두 문법형태가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 아직, 여전히, 여태'와 공기할 때 문장에서 실현되는 의미 차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후에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2.1.2.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을 언어로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에서 다루어졌다. 이에 반하여 시간 부사는 시상 문법 형태가 결합된 문장에서 시간 표현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희(1987: 3)에서는 시간의 속성은 동사의 내재적인 의미 특성과 시간어의 의미 특성과의 상관성에 의해서 표현된다고 언급한바 있다. 즉, 시간 부사에 내재된 상적 속성이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와 더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시간 부사들의 의미를 면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 부사와 결합하는 동사 부류의 상적 속성 또한 함께 관찰해야 한다.

동사가 지닌 상적 속성에 대하여 Vendler(1967: 97-121)에서는 '상태(states)' '동작(activities)', '완성(accomplishments)', '달성(achievememts)'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1]이러한 기준은 Smith(1997: 20)에서 '순간(semelfactive)'유형이 추가 되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는데, 순간 동사는 달성 동사를 세분화하여 그 의미가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동사 부류 설정은 시간 부사의 의미 특성을 논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사의 의미 특성과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이 문장에서 결합할 때 같은 상적 속성을 지닌 시간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공기 제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Smith(1997: 20)에서 설정한 동사 부류와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상적 속성을 가진 시간 부사가 다른 공기 제약을 보이는 현상은 시간 부사가 지닌 또 다른 속성, 즉 양태적 속성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2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볼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 '아직', '여전히', '여태'가 지닌 상적 속성이 언급된 연구로 김선희(1987), 임유종(1999), 우창현(2003) 등이 있다.

먼저 김선희(1987)에서는 '이미'와 '벌써'를 '완료상', '아직'을 '미완료상'이라는 내재된 상적 속성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

1) Vendler(1967: 97~121)에서 설정한 동사 부류 4가지는 다음과 같다.

- 상태동사(states): 알다, 믿다, 가지다, 사랑하다, 원하다, 미워하다 등
- 동작동사(activities): 뛰다, 걷다, 수레를 밀다, 수영하다, 차를 운전하다 등
- 완성동사(accomplishments): 성장하다, 책상 하나를 만들다, 한 바퀴를 뛰다 등
- 달성동사(achievements): 깨닫다, 발견하다, 정상에 오르다, 잃어버리다, 죽다 등

(1) ㄱ. 그는 이미/벌써 성공했다.
ㄴ. 그 일은 이미/벌써 끝났다.
ㄷ. 날이 이미/벌써 어두워진다.

(김선희 1987: 66)

김선희(1987: 66)에 따르면 (1)의 '이미'와 '벌써'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즉, 화자가 발화하기 이전에 완료된 어떤 사건의 변화된 결과를 말하며, 이 때 그가 성공한 것과 일이 끝난 것, 그리고 날이 어두워진 사건은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완료'의 의미를 함축한다. 다시 말해 '이미'와 '벌써'는 사건이 과거에 시작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완료'의 상적 속성을 지닌 시간 부사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김선희(1987 :68)에 따르면 '아직'은 '이미'와는 배타적인 구문 분포를 나타내고 의미상으로도 대립되는 '미완료상'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2) ㄱ. 그는 이미 갔다.
ㄴ. 그는 아직 가지 않았다.
(3) ㄱ. 그는 이미 어린애가 아니다.
ㄴ. 그는 아직 어린애이다.

(김선희 1987: 68)

(2ㄱ)에서는 긍정문에 '이미'가 쓰였는데, (2ㄱ)에 대한 부정문에서는 '아직'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3ㄱ)과 (3ㄴ)도 각각 부정과 긍정문에서 '이미'와 '아직'이 쓰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문문일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성립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김선희(1987: 71)에서는 긍정문이나 부정문 어느 한 쪽에만 나타나는 어구를 극어(polarity item)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미'와 '아직'은 극어의 짝(polar pair)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문장 차원에서의 상 해석을 논의한 우창현(2003)에서도 상은 상황과 상 의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간 부사어(구)나 논항과의 결합에 의해 상황의

시간 구조가 특정 시간으로 제한될 때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4) ㄱ. 영화가 끝나지 않았다.
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5) ㄱ. 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ㄴ. 여전히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4)는 시간 부사가 결합되지 않은 문장이고, (5)는 시간 부사 '아직'과 '여전히'가 결합된 문장이다. (4)와 (5)를 비교해 보면 시간 부사 '아직'과 '여전히'는 '영화가 끝나지 않은' 사건과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사건이 각각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미완료'적 속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 때 '아직'과 '여전히'는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앞으로 계속 미완료적인 속성을 띠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변할지에 대한 평가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간 부사가 나타내는 상적 속성은 시간 부사를 체계화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임유종(1999)에서는 시간 부사를 '시상 호응 부사'나 '시제 호응 부사' 등으로도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시간 부사는 상과 시제 체계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 부사 분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임유종(1999): 시상 호응 부사 분류 체계

분류 기준	부사 목록
시제 체계와 관련된 부사류	'아까': 과거 특정 시점 '지금', '이제': 현재 시간과 관련됨
시제와 상 모두에 관련되며 상적인 면이 두드러진 어휘 부류	'이미', '벌써': 시제상으로 볼 때는 과거이고 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완료상 '요즈음', '이즈음', '요새', '요사이': 시제상

	으로 현재, 상적인 의미로는 진행상. ‘아직’, ‘여태(껏)’ : 미완료상적 의미가 강함. ‘영원히’, ‘영구히’, ‘늘’, ‘밤낮’, ‘항상’, ‘노상’, ‘마냥’, ‘여전히’, ‘꾸준히’, ‘시종’, ‘줄곧’: 무한히 긴 시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습관상과 관련. ‘가끔’, ‘때때로’, ‘종종’, ‘간혹’, ‘이따금’, ‘간간이’ : 반복상

임유종(1999)에서 설정한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은 ‘완료상’, ‘진행상’, ‘미완료상’, ‘습관상’, 그리고 ‘반복상’이다. 본고의 논의대상인 ‘이미’와 ‘벌써’는 ‘완료상’에, ‘아직’과 ‘여태’는 ‘미완료상’의 범주에 속해 있다. 또한 ‘여전히’는 습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반면에 위 논의에서 ‘진작’은 분류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 ‘진작’은 ‘이미’, ‘벌써’와 같은 ‘완료’라는 상적 속성으로, ‘여전히’는 ‘아직’, ‘여태’와 같은 ‘미완료’의 상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2.2. 시간 부사와 양태

2.2.1. 양태의 정의와 체계

양태(modality)는 Lyons(1977: 452)에서는 양태를 ‘명제(또는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로 정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내 연구로 장경희(1998: 195)에서는 ‘사태에 대한 화자, 청자의 태도 즉, 명제에 대한 화자, 청자의 특정한 관점에서의 태도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즉 양태가 화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청자의 태도에서도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박재연(2006: 53)에서는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설명했다. 그리고 양태가 실현되는 선어말 어미와 종결어미를 의미적 특성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한편 박진호(2011ㄱ: 310)에 따르면 양태는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로 정의된다.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양태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양태는 '어떤 명제 또는 사건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양태 체계에 대하여 장경희(1998)에서는 한국어에서 양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를 1) 사건의 전모를 모르며 단편적인 관찰적 정보만을 지닌 경우 2) 공간적, 시간적인 한계성으로 인하여 사실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3) 뜻밖의 새로운 정보에 접하게 된 경우 4) 자신이 지닌 정보의 사실성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양태가 실현되는 어휘와 문법 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6) 장경희(1998: 197~198): 한국어의 양태 체계

ㄱ. 양태소: '-더-', '-네', '-겠-', '-지', '-구나', 일부 구어체('-리', '-니')
ㄴ. 양태 보조 동사: 문장의 종결어미 다음에 동사가 결합(엄정호 1990)
① (-지, -구나, -다, -나, -는가, -ㄹ까) 싶다
② (-나, -는가, -ㄹ까)보다
③ (-나, -는가, -ㄹ까)한다
ㄷ. 양태 관용 표현: (안명철 1983, 차현실 1984, 장경희 1985, 고영근 1987)
① -는 것이다, -는 바이다, -는 터이다
② ㉠-ㄴ(는, ㄹ)것 같다, -ㄴ(는, ㄹ)모양이다
㉡-ㄹ 법하다
③ -ㄹ 수 있다, -ㄹ 줄 알다
④ -ㄹ 터이다
⑤ ㉠ -ㄴ(는, ㄹ)척/체하다
㉡ -ㄴ(는, ㄹ)줄로 알다, ㉢-ㄹ뻔하다
ㄹ. 양태 동사와 양태 형용사: 추측하다, 생각하다, 믿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등
ㅁ. 양태 부사: 정말, 반드시, 확실히, 아마, 부디, 다행이도, 상상컨대, 짐작컨대 등

(6)에서 알 수 있는 양태 체계는 사실 양태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양태가 실현되는 어휘 또는 문법 범주에 따른 양태의 하위 범주이다. 한국어의 양태 체계에 대하여 양태의 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연구로는 박재연(2006), 문병렬(2007), 박진호(2011)등이 있다.

박재연(2006)에서는 전통적으로 양태의 하위 범주로 알려진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에서 의무 양태를 '행위 양태'라는 이름으로 새로 명명한 점이 눈에 띈다. 박재연(2006: 69)에 따르면 '행위 양태'에서 '행위'는 '의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 '행위 양태'는 기존 '의무' 또는 '허가'에서 배제될 수 있었던 '의도, 소망, 능력'의 의미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Palmer(1986: 121)에서 인식 양태를 '정보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의무 양태를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했을 때, '행위 양태'라는 명명은 그 부류의 양태가 갖는 본질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행위 양태'에서는 양태를 분류할 때 명제를 지식의 내용으로 사용하느냐, 행위의 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발화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박진호(2011ㄱ)에서는 양태의 하위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7) 박진호(2011ㄱ: 310-311)

ㄱ.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commitment)를 나타냄.
예: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ㄴ.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의무(obligation), 허락/허용(permission)

ㄷ.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ㄹ.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예: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ㅁ.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예: 직접 경험(direct evidence), 傳聞(hearsay), 추론(inferred)

(7)에서 알 수 있듯이 박진호(2011ㄱ)에서 주목할 점은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taitve modality)'를 설정한 사실이다. 감정 양태를 양태의 하위 범주 체계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고영근(1981, 1986), 박진호 · 박병선(1999), 이선웅(2001), 문병렬(2007), 박진호(2011ㄱ)등에서는 양태 체계의 하위 범주로서 감정 양태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장경희(1985, 1995), 임동훈(2003), 박재연(2004) 등에서는 감정 양태를 독립적인 하위 범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감정 양태를 양태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는 입장을 따른다. 감정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가 존재하듯이 시간 부사의 의미 특성에도 분명히 이러한 감정 양태의 속성이 문장에서 실현되어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기본 논의를 기반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여섯 개의 시간 부사가 지닌 양태적 속성을 감정 양태의 속성으로 설명할 것이다. 감정 양태의 하위 범주에 관하여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2.2. 시간 부사의 양태적 속성

한 문장에서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는 시간의 객관적인 정보 이외에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부사가 본디 가지고 있는 상적 속성과 더불어 문장에서 정도성을 가지고 실현될 수 있다. 즉, 상적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태적 속성이 약하게 드러나는 반면, 이와 반대로 상적 속성 보다 양태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간 부사들의 속성을 시간 부사가 근본적으

로 내재하고 있는 의미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간 부사의 양태적 속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선행 연구에서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김선희(1987), 임서현(1999), 염재일(2014)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먼저 김선희(1987)에서는 시간어 중에서 관련된 상황만을 나타내지 않고 사건을 인지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사건에 대한 시간적 상관성을 화자가 어떻게 인지하여 표현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시간 부사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희(1987)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상적 속성만을 기술한 반면 '벌써'와 '진작'에 대해서는 그들의 양태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다음은 김선희(1987: 46)에서 '벌써'의 양태적 속성을 설명한 예문이다.

(8) ㄱ. 유학 간다더니 벌써 결혼해?
ㄴ. 그토록 서로 좋아하더니 벌써 싸워?

(김선희 1987: 46)

(8)에 대하여 김선희(1987: 46)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예상의 기대치를 정해 놓고 그 기대치보다 빠른 시점을 나타낼 때 '벌써'가 쓰인다고 말한다.

한편 '진작'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양태적 속성을 실현한다고 보고 있다.

(9) ㄱ. 왜 진작 말을 안했니?
ㄴ. 젊을 때 진작 공부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

(김선희 1987: 43)

(9)에서 '진작'은 김선희(1987: 43)에서 설명할 때 '발화시보다 그 이전에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바람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양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건이 완료된 시점이 화자의 예상보다 늦은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임서현(1999)에서는 '아직'의 양태적 속성과 관련하여 '아직'과 '아직도', '아

직은'의 화용론적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0) ㄱ. 그는 나의 실력을 아직 과소평가하고 있다.
ㄴ. 언제나 듣던 얘기였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ㄷ. 나는 그녀를 아직은 친구로서 만나고 있지만, 이미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다.

(임서현 1999: 37)

(10)은 임서현(1999: 37)에서 제시한 '아직', '아직도', '아직은'의 의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의 기술에 의하면 예문 (10ㄱ)의 '아직'은 화자의 낙관적 태도를, (10ㄴ)의 '아직도'는 '낙관이 약화되고 관심 두지 않는 시구간이 예상보다 길어짐'을 유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10ㄷ)은 '-는'이 대조화제표지로 결합되어 발화시 이후 상태와 대조되는 더 강한 대조함축(contrastive implicature)을 유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아직도', '아직은'이 서로 다른 의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이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태적 속성 또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보조사와 결합하는 시간 부사의 양태적 속성 차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시간 부사 본연이 지니고 있는 의미 차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남은 문제로 두고자 한다.

'이미, 벌써, 아직'의 의미에 대하여 염재일(2014: 692)에서는 다음 예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11) ㄱ. 철수가 ??이미 집에 가려고 한다.
ㄴ. 철수가 벌써 집에 가려고 한다.
ㄷ. 철수가 *아직 집에 가려고 한다.

(염재일 2014: 692)

염재일(2014: 692)에서는 (11)에서 '벌써'가 가장 자연스러운 이유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시간이 미래일 수 있고 실제 언급된 시기가 그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두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사건이 빨리 완료된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벌써'가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시간 부사의 양태적 속성에 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해보면 모두 사건의 '완료' 또는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사건이 화자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먼저 완료 되었거나 혹은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바람 또는 미련 등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 부사의 의미에는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 모두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미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속성 모두를 아우르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미'와 '아직'의 상적 속성을 토대로 '이미'는 '사건 완료 중심'의 시간 부사, '아직'은 '사건 지속 가능성 중심'의 시간 부사로 각 부사가 담당하는 시간의 영역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부사와 유의 관계에 있는 '벌써', '진작'과 '여전히', '여태'를 각각 '이미'류와 '아직'류의 범주로 삼고자 한다. '이미'류와 '아직'류의 범주 기준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3. '이미'류와 '아직'류의 범주화

본 절에서는 시간 부사 '이미'와 '아직'의 의미 특성과 두 부사류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또한 사전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아직'과 각각 유의관계에 있는 부사들을 '이미'류와 '아직'류로 설정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2.3.1. '이미'와 '아직'의 관계

먼저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이미'와 '아직'의 사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미'와 '아직' 사전적 정의

ㄱ. 이미 「부사」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 '벌써', '앞서'의 뜻을 나타낸다.

ㄴ. 아직 「부사」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 '이미'와 '아직'은 각각 '완료된 사건'과 '미완료된 사건'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라고 할 수 있다. 김선희(1987)에서는 두 시간 부사가 서로 극어(polarity item)[2] 관계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임서현(1999)에서는 '이미'와 '아직'이 극성의 대립이 아니라 쌍대성 관계(duality relationship)[3]라는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염재일(2014)에서는 개체층위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를 통하여 '이미'와 '아직'이 쌍대성 관계에 있는 다른 언어들과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4]

본고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어휘 특성에 따른 관계를 정의하는 것보다 이들 부사가 지닌 상적 속성을 좀 더 살펴본 후, 그 차이를 통해 두 부사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간 부사 분류 체계에서 '이미'와 '아직'이 상적 속성을 가진 부사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왔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

2) 극어(polarity item)란 긍정문이나 부정문 중 어느 한쪽에만 나타나는 어구를 말한다.

3) 쌍대성 관계란(duality relationship)이란 Löbner(1987, 1989, 1995)에서 독일어 'schon'과 'noch'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일반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이론을 토대로 밝힌 관계이다. 임서현(1999)에서는 '이미'와 '벌써'도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를 충족시키기는 것이 상적 속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염재일(2014: 673)에 따르면 '이미'와 '아직'은 원래 전제가 다르므로 직접 의미적 관계를 말할 수 없고, '이미(t, P)'와 '아직(t, not-P)'이 전제가 같아짐으로써 둘 사이의 부정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함. 다시 말해 두 시간 부사의 관계는 쌍대관계가 아니고 단지 서로 (외부) 부정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먼저 김진수(1985)와 김선희(1987)에서는 ‘이미’와 ‘아직’을 각각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명시하였다. 민현식(1989)에서는 중세국어 시상부사 체계에서는 ‘이미’는 완료상으로 앞선 논의와 다르지 않으나 ‘아직’이 ‘진행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아직’이 현재 관여성(present relevance)을 ‘이미’보다 더욱 강하게 지니고 있는 시간 부사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임서현(1999)에서는 같은 의미이나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이미’와 ‘아직’을 각각 ‘완결상(perfect)’과 ‘미완결상(imperfect)’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염재일(2014)에서 ‘이미’는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이 주제시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충족되었음을 나타내고, ‘아직’은 그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이 이전의 어떤 상황유형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상부사’임을 주장했다.[5)]

본고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2.1.2.절에서 언급했듯이 ‘이미’는 ‘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지닌 부사로, ‘아직’은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지닌 부사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완료’란 한 사건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적 속성, 즉 현재 관여성을 지닌 ‘완료상(perfect aspect)’[6)]를 의미한다.

2.3.2. ‘이미’류와 ‘아직’류의 설정

---

5) 염재일(2014: 675)에서는 ‘아직’의 속성으로 한 사건이나 제한된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와는 쓰일 수 없고, 원래의 상태술어나 사건동사의 부정을 통한 사건이 없는 상태나 총칭문이나 빈도등만이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미완상이라고 또는 지속성이라고 하였다.

‘이미’ → 단언: P(t); 전제: START[P[(t') (t'<t)

‘아직’ → 단언: P(t); ㄱ[FINISH[P(t')] (t'<t)

‘벌써’ → 단언: P(t); 대체항: not-P(t), or NOT [START [P(t')]] (t'<t)

6) 완료상(perfect aspect)은 범언어적인 상 범주로서 과거 사건이 현재 관여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영어의 'have p.p' 구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근접 과거, 과거 경험, 과거 지속, 결과 상태 지속이라는 4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 4가지 용법의 공통된 의미 성분이 바로 ‘현재 관여성’임을 알 수 있다. 시간 부사 ‘이미’와 ‘아직’도 시간의 위치가 아닌 상황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상적 속성이 각각 과거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부사라는 점에서 ‘완료상’의 상 범주에 속하는 시간 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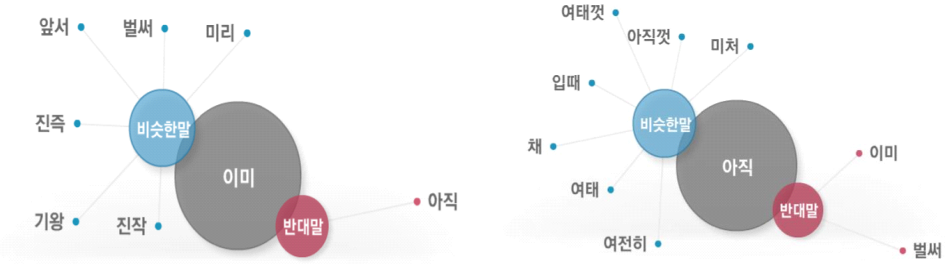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앞서 ‘이미’와 ‘아직’의 상적 속성, 즉 ‘완료’와 ‘미완료’ 기준으로 각각 두 범주를 나누었다. 그리고 본 절에서는 이들과 유의관계에 있는 부사들을 선정하여 ‘이미’류와 ‘아직’류로 범주화시켜 각 부사들 간의 의미 특성을 더욱 세분화시키고자 한다. 시간 부사 ‘이미’류와 ‘아직’류의 범주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3) 시간 부사 ‘이미’류와 ‘아직’류의 범주 설정 기준

ㄱ. 시간 부사 ‘이미’, ‘아직’과 유의 관계에 있으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높은 빈도수로 사용 되고 있는가.[7)]
ㄴ. 문장에서 상적 속성뿐만 아니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양태적 속성이 실현되는가.

먼저 첫 번째 기준에 적합한 부사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미’, ‘아직’의 시소러스(thesaurus)를 살펴보자.[8)]

(14) ‘이미’와 ‘아직’의 시소러스



7) 현대 구어 21세기 세종 기획 말뭉치와 문서화된 텔레비전 연속극 및 시트콤 극본 6,883회분과 영화 각본 314편에서 검색한 각 부사의 빈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8) 시소러스(thesaurus)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지식의 보고(寶庫)'라는 뜻인데, 로제가 영어의 어휘를 내용상으로 분류하여 관련어를 표시한 사전을 만들어 시소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래, 그러한 사전을 시소러스라고 일컫게 되었다. 현재에는 정보검색, 특히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는 기계검색의 분야에서 관련어를 표시한 어휘표의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그것을 시소러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유의어 · 반의어뿐만 아니라, 개념의 상위 ·하위의 관계에 의한 관련어도 중요하여,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검색되는 것이 요구된다.(출처: 두산백과)
본고에서 참고한 시소러스는 (주) 낱말창고(http://www.wordnet.co.kr/)이다.

우선 ‘이미’의 시소러스를 살펴보면 ‘미리’, ‘벌써’, ‘앞서’, ‘진즉’, ‘기왕’, ‘진작’이 비슷한말에 위치하고, 반대말에 ‘아직’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아직’의 시소러스를 살펴보면 ‘미처’, ‘아직껏’, ‘여태껏’, ‘입때’, ‘채’, ‘여태’, ‘여전히’가 비슷한말에, ‘이미’와 ‘벌써’가 반대말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미’의 시소러스에서 상적 속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벌써’와 ‘진작’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아직’의 시소러스에서는 같은 기준 아래에 ‘여전히’와 ‘여태’를 선택하였다. 이제 이 네 부사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양태적 속성이 실현되는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미’, ‘아직’과 더불어 네 부사들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뿐만아니라 《연세한국어사전》 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에 기술된 사전적 정의를 종합하여 <표 5>와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사전의 명칭은 앞으로 각각 《표준》, 《연세》, 《고려》 로 부르기로 한다.

<표 5> ‘이미’류 《표준》, 《연세》, 《고려》 사전 정의

표제어	《표준》	《연세》	《고려》
이미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 ‘벌써’, ‘앞서’의 뜻을 나타낸다.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생긴 것이) 시간상으로 그보다 앞서.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 일이 다 끝나거나 지난 일임을 이를 때 쓰인다.
벌써	①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② 이미 오래전에.	① 이미 오래전에. ②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어느 틈에. 생각보다 이르게. ③ 이미 기대했던 대로.	① 시간이나 기간 따위가 저도 모르게 어느 틈에. ② 예상보다 빨리. 또는 생각보다 일찍. ③ 어떤 일이나 동작이 일어난 시각이나 시기보다 앞서서. 또는 그전에.

진작	좀 더 일찍이. 주로 기대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은 지나간 사실에 대하여 뉘우침이나 원망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에 쓴다.	① 그때부터 미리. 그때부터 바로. 일찌감치. ② [명사적으로 쓰이어] 이미 그때.	과거의 어느 때에 이미.

<표 5>의 《표준》, 《연세》, 《고려》의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미'류의 양태적 속성을 정리하면 (15)과 같다.

(15) 《표준》, 《연세》, 《고려》에 나타난 '이미'류의 양태적 속성

ㄱ. '이미': (양태적 속성에 대한 기술 없음)
ㄴ. '벌써': 예상보다 빨리, 또는 생각보다 일찍.
ㄷ. '진작': 기대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은 지나간 사실에 대하여 뉘우침이나 원망.

(15)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사전 모두 '이미'는 양태적 속성에 관한 기술이 없다. '벌써' 또한 '화자의 예상 또는 생각보다 일찍'이라는 간단한 기술만 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진작'에 대하여는 '뉘우침'과 '원망'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양태적 속성의 의미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직'류에 관한 《표준》, 《연세》, 《고려》의 사전적 정의는 <표 6>과 같다.

<표 6> ‘아직’류 《표준》, 《연세》, 《고려》 사전 정의

표제어	《표준》	《연세》	《고려》
아직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①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어] (어떤 때가) 미처 (되지 못하여). (어떤 때에) 이르러 (있지 못하여). ②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어] (어떤 때가) 미처 (되지 못하여). ③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④ [주로 ‘아직도’의 꼴로 쓰이어] (어떤 상태나 행동이)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하여 지금도.	① (ㄱ) 때가 되지 못하였거나 미처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말. 유의어: 미처, 아직껏, (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때가 되지 못하였거나 미처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말. ② 어떤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유의어: 여전히 (如前-) ③ [‘~도’, ‘~밖에’가 붙은 명사 앞에 쓰여]기껏 따져 보아야. 유의어: 겨우2(2), 고작
여전히	전과 같이. (如前-)	전과 다름이 없이 계속해서.	전과 다름없이. 유의어: 아직2(2), 여구히 (如舊-)

여태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어떤 행동이나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옴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입때.	['여태까지'의 꼴로 자주 쓰이어] 지금까지, 아직까지.	[주로 '여태'의 꼴로 쓰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의어: 여직 3 , 입때.

<표 6>의 《표준》, 《연세》, 《고려》의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미'류의 양태적 속성을 정리하면 (16)과 같다.

(16) 《표준》, 《연세》, 《고려》에 나타난 '아직'류의 양태적 속성

ㄱ. '아직': ['~도', '~밖에'가 붙은 명사 앞에 쓰여]기껏 따져 보아야.
ㄴ. '여전히': (양태적 속성에 대한 기술 없음)
ㄷ. '여태': 어떤 행동이나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옴을 나타낼 때 쓰는 말.

(16)에서 살펴보면 '아직'에 관한 세 사전의 양태적 속성은 '아직' 본연의 뜻이 아닌 '아직도' 또는 '아직~밖에'가 붙은 경우의 의미만 기술하고 있다. '여전히'에 대하여는 양태적 속성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여태'는 '이미'류의 '진작'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상세하게 '여태'가 지니고 있는 양태적 속성을 어떤 사건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또는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표준》, 《연세》, 《고려》의 사전적 정의에 기술된 ‘이미’류와 ‘아직’류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사전적 정의에서 미처 기술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여전히’에 대해서도 다른 시간 부사와 비교했을 때 양태적 속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세 부사가 나타내는 양태적 속성은 다른 세 부사와 같은 양태의 범주 아래에서 밝혀질 것이다.

3. ‘이미’류와 ‘아직’류의 시상 문법 형태 공기

본 장에서는 ‘이미’류와 ‘아직’류 부사들이 시상 문법 형태와 공기하면서 두 부류의 부사들이 지닌 상적 속성이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만약 같은 문장 형식에서 서로 다른 공기 양상을 보이는 부사가 있다면 이때 그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문장 유형별로 체계화 할 것이다. 또한 시상 문법 형태가 동사와 결합할 때 동사가 지니고 있는 상적 속성과 시간 부사의 의미 간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3.1. ‘이미’류와 시상 문법 형태 공기

본 절에서는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이 각각 시제 문법 형태와 상 문법 형태와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본 후, 각 시간 부사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는데 시제와 상 문법 형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시제 문법형태는 ‘-었-’,‘-느/Ø-’,‘-을 것이-’고, 상 문법형태는 ‘-어 있-’과 ‘-고 있-’이다. 전통적인 시제 문법형태에 관한 논의에서는 ‘-었었-’,‘-더-’, ‘-겠-’등도 각각 과거, 현재, 미래시제 문법형태로 보고 있다. ‘-었었-’은 ‘-었-’과 비교하여 사건이 완료를 나타내는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었-’ 하나만 선택해도 과거시제 형태와의 공기양상을 살펴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 또한 ‘-더-’나 ‘-겠-’은 본고에서는 시제 형태의 역할보다 양태의 의미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교적 시제의 의미만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문법 형태(‘-었-’,‘-느/Ø-’,‘-을 것이-’)를 중심으로 시간 부사와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1.절에서는 ‘이미’류와 시제 문법 형태, 3.1.2.절에서는 ‘이미’류와 상 문법 형태와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미’, ‘벌써’, ‘진작’의 의미 차이를 면밀

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또한 이 때 동사의 상적 속성이 시간 부사의 의미 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3.1.1. '이미'류와 시제 문법 형태 공기

3.1.1.1. '-었-'

'-었-'은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를 담당하는 문법 형태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끝난 시점을 나타내는 '-었-'과 사건이 완료됨을 나타내는 '이미'류 시간 부사의 결합 양상은 다음 예문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ㄱ. 비행기가 이미 두 채 떴다.
ㄴ. 비행기가 벌써 두 채 떴다.
ㄷ. 비행기가 진작 두 채 떴다. (김진수 1985: 91-92 예문 수정)

(1)은 '비행기가 두 채 뜨다'는 사건에서 '-었-'은 '비행기가 뜬' 사건이 끝난 시점이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이미'류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의 의미는 과거 사건에서 그 사건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미', '벌써'가 과거 사건의 완료된 시점을 강조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일찍이 김진수(1985: 91)에서는 시제 문법 형태만으로 한국어의 시제나 시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언급했다.[9] 즉 '-었-'이 과거 시제의 의미 범주를 나타낸다면, 문장에서 나타나는 '완료'의 속성은 시간 부사 '이미', '벌써' 등이 담당한다는 것이다.[10]

---

9) 김진수(1985: 91)에서는 최현배(1929: 449)에서 '과거시제'와 '현재완료'를 구분하는 기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현배(1929: 449)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거시제'와 '현재완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베풂꼴의 지난적(과거)은 그 으뜸꼴의 씨몸과 씨끝 사이에 지난적 때 도움줄기 '았'이나 '었'(또는 '였')을 더하여 만드느니라. 이적 끝남(현재 완료)은 움직임이 이적에(이제) 막 끝나서 그 결과가 방금 들어나아 있음을 보이는 때매김이니 : 그 꼴은 움직씨의 이적꼴(○○다)에 마침의 때 도움줄기 '았'이나 '었' 또는 '였'을 더하여 만드느니라(곧 지난적 꼴과 같음)."
이에 대하여 김진수(1985: 92)에서는 하나의 문법형태가 시제와 상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을 경우, 이들의 의미 차이를 더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형태가 시간부사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류 시간 부사가 문장에서 ‘완료’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습은 (2)와 같은 의문문에서도 실현된다.

(2) ㄱ. (환자를 바라보며) 다른 병원에서 이미 검사 다 하셨다고요?
ㄴ. (환자를 바라보며) 다른 병원에서 벌써 검사 다 하셨다고요?
ㄷ. (환자를 바라보며) 다른 병원에서 진작 검사 다 하셨다고요?

(2)는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며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것에 대하여 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이미’, ‘벌써’, ‘진작’이 결합할 경우 검사를 마친 사건이 완료가 되었고, 그 완료된 시점이 언제였는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류 시간 부사는 문장에서 실현되는 의미는 ‘완료’라는 상적 속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었-’과 공기하는 ‘이미’류 시간 부사가 (1)과 (2)와 같이 공통된 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3) ㄱ. *이미 운동장 한 바퀴를 뛰지 않았다.
ㄴ. *벌써 운동장 한 바퀴를 뛰지 않았다.
ㄷ. 진작 운동장 한 바퀴를 뛰지 않았다.

(3)은 ‘운동장 한 바퀴를 뛰지 않았다’라는 사건에 시간 부사 ‘이미’류가 결합한 문장이다. ‘한 바퀴를 뛰다’는 Smith(1997)의 상적 부류에 따르면 완성 동사 유형에 속하는 동사이다. 완성 동사는 사건이 지속되다가 그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가 강한 유형이다. 이러한 동사의 상적 속성과 ‘이미’류 시간부사의 상적 속성간의 결합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3ㄱ)과 (3ㄴ)에서 ‘이미’와 ‘벌써’는 어색하다.

10) 물론 ‘-었-’과 ‘이미’류 시간부사의 의미 영역이 각각 시제와 상적 속성으로 이분법화 되는 것은 아니다. ‘-었-’의 의미 또한 ‘완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류 시간부사가 문장에 결합할 경우 ‘이미’류의 상적 속성이 문장에서 ‘완료’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 특성은 ‘진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이미’와 ‘벌써’가 문장에서 의미 제약이 있는 것과 달리, 이들과 같은 상적 속성을 지닌 ‘진작’은 (3ㄷ)과 같이 이러한 의미 제약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해석을 보인다.

‘진작’과 ‘부정’의 관련성은 다음 예문 (4)와 같은 ‘못’ 부정문 형식에서도 관찰된다.

(4) ㄱ. 내가 그 때 ?이미 엄두를 내지 못했어.
ㄴ. 내가 그 때 *벌써 엄두를 내지 못했어.
ㄷ. 내가 그 때 진작 엄두를 내지 못했어.

(4)는 화자가 과거 그 때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미’, ‘벌써’, ‘진작’이 결합되어 각각 다른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진작’이라면, 가장 어색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벌써’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는 ‘벌써’보다는 자연스럽지만, ‘진작’과 비교했을 때 역시 다소 어색한 의미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건이 완료된 시점에 ‘진작’이 지니고 있는 상적 속성 이외에 양태적 속성이 문장에서 실현되고, 이때 나타나는 양태적 속성은 ‘이미’나 ‘벌써’에 내재되지 않은 ‘진작’의 고유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작’의 이러한 속성은 ‘이미’류가 결합된 부정문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공기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이미’류 부사가 ‘-었-’ 문법 형태가 결합된 문장에서 서로 다른 공기 양상을 보이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정문에서는 ‘진작’의 양태적 속성이 문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이미’류 부사의 공통된 상적 속성인 ‘완료’는 ‘-었-’과의 공기 양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1.2. ‘-느/Ø-’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는 ‘-느-’와 ‘-Ø-’가 있다. 현재시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장 유형이 바로 ‘총칭문(generic sentence)’이다. 임서현(1999: 14)에서

는 ‘이미’의 상적 속성이 ‘완료’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음 예문 (5)에서와 같이 총칭문과의 제약을 언급한 바 있다.

(5) ㄱ. 기름은 *이미 물 위에 뜬다.
ㄴ. 금속은 *이미 딱딱하다. (임서현 1999: 14)

(5)와 같이 임서현(1999 :14)에서는 총칭문에서 ‘이미’의 의미 제약이 나타난다. 한편 같은 부사류인 ‘벌써’와 ‘진작’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6) ㄱ. 기름은 *(벌써/진작) 물 위에 뜬다.
ㄴ. 금속은 *(벌써/진작) 딱딱하다.

(5)와 (6)이 총칭문에서 ‘이미’류의 의미 제약이었다면, 다음 (7)과 같이 항진명제 문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약이 관찰된다.

(7) ㄱ. 1더하기 1은 *이미 3이다.
ㄴ. 지구는 *벌써 둥글다.
ㄷ. 사람은 *진작 죽는다.

(7)에서 ‘이미’류 시간 부사는 모두 의미 제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세 시간부사의 상적 속성인 ‘완료’의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상황의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의 문장들처럼 ‘이미’류 시간 부사는 상황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 항진 명제와 공기할 수 없다.

앞서 총칭문과 항진 명제에서 ‘이미’류 시간 부사들의 공기 제약을 살펴보았다. 이제 사건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는 현재 시제 문장에서 세 부사의 상적 속성이 어떻게 문장에서 실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현재 시제 문법 형태 ‘-느-’와 ‘이미’류 시간 부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예문 (8)과 같다.

(8) ㄱ. 민호는 이미 걷는다.
ㄴ. 민호는 벌써 걷는다.
ㄷ. 민호는 ?진작 걷는다.

(8)은 '민호는 걷는다'라는 명제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민호가 어린 아이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미'와 '벌써'가 결합한 문장의 해석이 자연스러운 반면, '진작'이 결합한 문장은 다소 어색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11)]

(8)에서 '이미'와 '벌써'가 현재 시제 문장과 자연스럽게 공기하고, '진작'만 어색한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앞선 과거 시제 문법 형태 '-었-'과의 공기 양상과 같은 차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때 문장에서 나타나는 '이미'류 시간부사의 의미는 상적 속성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의미 속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걷다'라는 동작 동사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미'류 시간 부사가 '완료'의 상적 속성으로 문장에서 실현된다면 '진작' 뿐만 아니라 '이미'와 '벌써' 또한 의미 제약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진작'의 의미만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는 (8)에서 실현되는 각 부사들의 양태적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동작 동사 유형뿐만 아니라 예문 (9)처럼 현재시제에서 순간 동사와의 결합에서도 유사한 의미 제약을 나타내고 있다.

(9) ㄱ. 민수가 ?이미 기침을 한다.
ㄴ. 민수가 벌써 기침을 한다.
ㄷ. 민수가 *진작 기침을 한다.

(9)는 '민수가 기침을 한다.'라는 사건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9ㄴ)에서 '벌써'는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반면 (9ㄱ)의 '이미'와 (9ㄷ)의 '진작'은 매우

11) 이 경우 '진작' 대신에 '진작에'를 넣으면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작에'의 경우는 '진작'에 조사 '-에'가 잘못 결합한 경우로 이미 사전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진작에'가 '진작'의 잘못된 표현임을 전제로 하고 '진작에'는 본 논의에서 다루지 않는다.

어색한 의미 해석으로 나타난다.

'기침을 하다'는 순간동사 유형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9ㄴ), (9ㄷ)과 같이 사건의 완료라는 의미 속성을 지닌 '이미'와 '진작'이 의미 제약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9ㄴ) '벌써'는 '이미', '진작'과 달리 현재시제와의 공기가 자연스럽다. 이는 '이미'와 '진작'과 달리 '벌써'는 '완료'라는 상적 속성보다 또 다른 의미 속성, 즉 양태적 속성의 비중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맥락은 다음 예문 (10)과 같은 현재 시제 문법 형태 '-Ø-'가 결합한 의문문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0) ㄱ. 왜 ?이미 집에 가지?
ㄴ. 왜 벌써 집에 가지?
ㄷ. 왜 *진작 집에 가지?

(10)은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되지 않을 경우와 결합될 경우 해석이 달라지는 문장이다. '이미'류 시간 부사가 없는 문장일 경우 화자는 청자에게 집에 가는 '이유'에 대하여 묻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하면 이 때 화자는 집에 가는 이유가 아닌 화자가 예상하는 사건 완료 시점보다 빨리 사건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에서도 '이미'류가 지닌 상적 속성으로는 문장 의미 해석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미'류 부사가 '-느/Ø-' 문법 형태가 결합된 문장에서 서로 다른 공기 양상을 보이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미'류 시간부사는 사건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 총칭문이나 항진명제에서는 의미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한편 동작동사나 순간동사 등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상적 속성을 지닌 동사와 공기할 경우, '이미'류의 상적 속성과 공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는 자연스러운 의미로 해석되었고, 이때 문장에서 나타나는 '벌써'의 의미는 상적 속성이 아닌 양태적 속성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3.1.1.3. ‘-을 것이-’

세 시제 문법 형태 중에서 ‘이미’류 시간 부사와 공기 양상이 가장 어색한 형태는 바로 ‘-을 것이-’이다. ‘-을 것이-’는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 발화시 중심에서 발화시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특성이 강하므로 사건의 완료 시점을 나타내는 ‘이미’류 시간 부사와 의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달성 동사 유형인 ‘정상에 다다르다’가 ‘-을 것이-’와 결합했을 때 ‘이미’류 시간 부사들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예문 (11)과 같다.

(11) ㄱ. 내일이면 ?이미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
ㄴ. 내일이면 벌써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
ㄷ. 내일이면 *진작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

(11)은 ‘내일이면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사건에 대하여 ‘이미’류 시간 부사가 각각 결합한 문장이다. 앞서 현재 시제 문법 형태가 결합한 문장과 마찬가지로 (11ㄴ)의 ‘벌써’를 제외하고 (11ㄱ)과 (11ㄷ)의 ‘이미’와 ‘진작’은 문장에서 다소 어색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11)에서도 ‘이미’류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과 관련지어 각각의 공기 양상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벌써’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어렵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의문문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2) ㄱ. *이미 서울에 올라갈 거야?
ㄴ. 벌써 서울에 올라갈 거야?
ㄷ. *진작 서울에 올라갈 거야?

(12)는 ‘서울에 올라갈 거야?’라는 사건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12ㄱ)과 (12ㄷ)에서 ‘이미’와 ‘진작’은 평서문인 (11)의 예문보다 더욱 어색한 의미 해석을 보이고 있다. 반면 (12ㄴ)에서 ‘벌써’는 현재 시제 문법 형태와 공기 했

던 ‘왜 벌써 집에 가지?’와 같은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벌써’는 ‘이미’와 ‘진작’에 비해 양태적 속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맥락이 주어질 때마다 화용론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벌써’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양태적 속성으로 종합하여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이 ‘이미’류 부사들은 시제 문법 형태 ‘-었-’, ‘-느/Ø-’, ‘-을 것이-’와의 공기에서 모두 같은 공기 양상을 보이지 않음을 밝혔다. ‘이미’류 부사들의 의미 차이는 상적 속성만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 한계는 양태적 속성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미’류와 상 문법 형태 공기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3.1.2. ‘이미’류와 상 문법 형태 공기

3.1.2.1. ‘-어 있-’

‘-어 있-’은 ‘완료상’ 또는 ‘결과상’의 상 범주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이다.[12] ‘이미’류가 ‘완료’의 상적 속성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라는 사실은 곧 같은 의미 속성을 가진 ‘-어 있-’과의 공기가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예문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ㄱ. 민호와 민정이는 이미 잠들어 있다.
ㄴ. 민호와 민정이는 벌써 잠들어 있다.
ㄷ. 민호와 민정이는 진작 잠들어 있다.

(13)은 ‘민호와 민정이는 잠들어 있다’는 사건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된 문장

12) 본고에서는 박진호(2011ㄱ)을 따라 앞으로 ‘-어 있-’을 ‘결과상’의 문법 형태로 부르고자 한다.

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상 문법 형태인 '-어 있-'은 '완료'의 상적 속성을 지닌 '이미'류 시간 부사와 가장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세 시간 부사의 의미는 모두 결과상 문법 형태 '-어 있-'으로 실현된 문장에서 완료된 시점이 언제인지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예문 (14)에서도 나타난다.

(14) ㄱ. 얼굴과 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다.
ㄴ. 얼굴과 몸은 벌써 땀으로 젖어 있다.
ㄷ. 얼굴과 몸은 진작 땀으로 젖어 있다.

(14)는 '얼굴과 몸은 땀으로 젖어 있다.'는 사건에 '이미', '벌써', '진작'이 각각 결합된 문장이다. 이 역시 '이미'류 시간 부사 모두 '-어 있-'과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류의 '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어 있-'의 '결과'라는 상적 속성과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미'류 시간 부사가 상 문법 형태와 공기할 경우 '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1.2.2. '-고 있-'

'-고 있-'은 소위 '진행상'의 상 범주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로 알려져 있다. '진행'은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의 속성을 지닌 '이미'류 시간 부사가 어떤 공기 양상을 보이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문 (15)에서는 '먹다'에 '-고 있-'이 결합하고 '이미'류 시간 부사의 공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5) ㄱ. 민호는 저녁을 이미 먹고 있다.
ㄴ. 민호는 저녁을 벌써 먹고 있다.
ㄷ. 민호는 저녁을 진작 먹고 있다.

(15)는 ‘민호가 저녁을 먹고 있는’ 사건에 ‘이미’, ‘벌써’, ‘진작’이 결합된 문장이다. 이 때 예문 (15)의 의미는 민호가 저녁을 먹는 사건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미’류 시간 부사가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관여성(present relevance)’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 부사의 이러한 공통된 의미 속성이 ‘-고 있-’이 공기하는 모든 문장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 (16)과 같은 부정문에서 ‘이미’류 시간 부사는 각기 다른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 ㄱ. 민수가 저녁을 *이미 먹지 않고 있어?
ㄴ. 민수가 저녁을 *벌써 먹지 않고 있어?
ㄷ. 민수가 저녁을 진작 먹지 않고 있어?

(15)와 달리 부정문인 (16)의 예문들은 다른 의미 해석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미’류 시간 부사가 부재한 ‘민수가 저녁을 먹지 않고 있어?’라는 문장은 단순히 화자가 청자에게 민수가 밥을 먹지 않는 행동이 진행중인지 여부를 묻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16ㄱ)과 (16ㄴ)의 경우 ‘이미’와 ‘벌써’는 부정문에서 의미 제약의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6ㄷ)의 ‘진작’은 ‘이미’와 ‘벌써’보다 부정문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공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이미’류 시간 부사들과 부정문에서 ‘-고 있-’이 결합한 문장 간의 공기 양상은 ‘이미’류의 상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진작’이 부정문에서 다른 두 부사에 비해 의미 제약이 적은 이유가 어떤 의미 속성 때문인지 4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미’류 시간부사와 상 문법 형태 ‘-어 있-’, ‘-고 있-’과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소위 ‘결과상’ 문법형태인 ‘-어 있-’과 ‘완료’의 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미’류 시간 부사와의 공기는 다른 시상 문법형태와의 공기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진행상 ‘-고 있-’에서는 부정문에서 ‘진작’을 제외한 두 시간 부사의 공기 제약이 있었으며, 이는 ‘이미’류의 상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임이 관찰되었다.

3.2. ‘아직’류와 시상 문법 형태 공기

본 절에서는 시간 부사 ‘아직’류와 시제 문법 형태 ‘-었-’, ‘-느/Ø-’, ‘-을 것이-’와 결과상 문법 형태 ‘-어 있-’, 진행상 문법 형태 ‘-고 있-’이 공기하는 양상을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류 시간 부사와 마찬가지로 ‘아직류’ 각 부사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는데 시제와 상 문법 형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다.

3.2.1.절에서는 ‘아직’류와 시제 문법 형태, 3.2.2.절에서는 ‘아직’류와 상 문법 형태와의 공기 양상을 토대로 ‘아직’, ‘여전히’, ‘여태’의 의미 차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또한 이 때 동사의 상적 속성과 ‘아직’류 시간 부사의 의미 속성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3.2.1. ‘아직’류와 시제 문법 형태 공기

3.2.1.1. ‘-었-’

앞서 ‘이미’류 시간부사는 ‘-었-’과 결합하였을 때 사건의 완료 시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실현됨을 밝혔다. 반면에 ‘이미’류 시간부사와 서로 다른 의미 특성을 지닌 ‘아직’류 시간 부사와 ‘-었-’이 결합한 형태는 다음 예문 (17)에서 살펴볼 수 있다

(17) ㄱ. 민호가 역에 도착했을 때 *아직 버스는 떠났다.
ㄴ. 민호가 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버스는 떠났다.
ㄷ. 민호가 역에 도착했을 때 *여태 버스는 떠났다.

(17)은 ‘민호가 역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떠났다’라는 과거 사건에 ‘아직’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여태’ 모두 각각의 문장과 자연스럽게 공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류 시간 부사가 지니고 있는 상적 속

성 때문일 것이다. 즉, '버스가 떠난' 사건은 '완료'이고, '아직'류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공기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버스가 떠난' 사건을 부정할 경우 예문 (17′)과 같은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17′) ㄱ. 민호가 역에 도착했을 때 아직 버스는 떠나지 않았다.
ㄴ. 민호가 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버스는 떠나지 않았다.
ㄷ. 민호가 역에 도착했을 때 여태 버스는 떠나지 않았다.

(17)을 부정한 (17′)에서는 '아직'류 모두 공기가 가능한 모습을 보인다. 즉, '민호가 도착했을 때 버스가 떠난' 사건을 부정함으로써 그 사건이 버스가 떠나지 않은 '미완료' 상태가 되고, 이 사건의 미완료는 '아직'류 부사의 상적 속성과 일치하게 된다.

앞선 예문 (17)에서 '아직'류 시간 부사는 완료된 사건과 모두 공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완료'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류 시간 부사 각각의 공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8) ㄱ. 민정이는 ?아직 예뻤다.
ㄴ. 민정이는 여전히 예뻤다.
ㄷ. 민정이는 *여태 예뻤다.

(18)은 '민정이는 예뻤다'라는 사건에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된 문장이다. (18ㄱ)의 '아직'와 (18ㄷ)의 '여태'는 두 부사의 '미완료' 상적 속성으로 인하여 '-었-'과의 공기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는 같은 '미완료'의 상적 속성을 지닌 시간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태'와 다른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예문 (18′)과 같이 의문문으로 문장 유형이 바뀌었을 경우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18′) ㄱ. 민정이는 ?아직 예뻤어?
ㄴ. 민정이는 여전히 예뻤어?
ㄷ. 민정이는 여태 예뻤어?

(18′)은 민정이가 과거에 예뻤고, 예쁜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묻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8)과 달리 (18′)에서는 '여전히' 뿐만 아니라 '여태'도 자연스러운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여태'의 의미는 상적 속성이 아닌 양태적 속성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태'는 '여전히'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는데, 두 부사가 지닌 양태적 속성의 의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현재 시제 문법 형태와의 공기 양상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3.2.1.2. '-느/Ø-'

앞서 '이미'류 시간 부사와 현재시제 문법 형태 '-느/Ø-'와의 결합해서 총칭문과 항진명제에서 공기 제약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류 시간 부사와 총칭문, 그리고 항진명제와의 공기 양상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19) ㄱ. 사람들은 *아직 죽는다.
ㄴ. 사람들은 *여전히 죽는다.
ㄷ. 사람들은 *여태 죽는다.

(19)는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명제에 '아직'류 시간 부사 모두 공기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총칭문의 특성이며 '아직'류의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사건 지속 가능성이 '죽다'라는 상태 동사의 속성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아직'류 시간 부사는 다음 예문 (20)과 같이 일반적인 항진 명제에서 '이미'

류 시간 부사와 유사한 공기 제약이 관찰된다.

(20) ㄱ. 1더하기 1은 *아직/?여전히/*여태 3이다.
ㄴ. 달은 *아직/?여전히/*여태 둥글다.
ㄷ. 제주도는 *아직/?여전히/*여태 섬이다.

(20)에서 '아직'류 시간 부사는 모두 의미 제약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관찰할 사실은 '아직'과 '여태'가 매우 강한 의미 제약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전히'는 두 시간 부사에 비해 비교적 공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세 시간부사의 '미완료'라는 공통된 상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보다 '여전히'는 다른 두 시간 부사에 없는 양태적 속성의 의미가 실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문 (21)은 '여전히'가 지니고 있는 양태적 속성에 기인한 공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1) ㄱ. 민수는 ?아직 착하다.
ㄴ. 민수는 여전히 착하다.
ㄷ. 민수는 *여태 착하다.

(21)은 '민수는 착하다.'는 사건에 '아직'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21)의 문장들은 앞서 과거시제 문법 형태 '-었-'과 결합한 '민정이는 예쁘다'는 사건에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한 문장과 같은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아직'과 '여태'가 자연스럽게 공기하지 못하는 문장에 '여전히'만 유일하게 어색하지 않은 의미 해석을 보인다.

따라서 '여전히'는 '아직'과 '여태'와는 다른 양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문장에서 상적 속성보다 양태적 속성의 의미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과 '여전히', 그리고 '여태'가 지닌 양태적 속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3.2.1.3. ‘-을 것이-’

‘-을 것이-’는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 발화시 중심에서 발화시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특성이 강하므로 사건의 미완료 시점을 나타내는 ‘아직’류 시간 부사와 의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예문 (22)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아직’류 시간 부사의 공기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22) ㄱ. 민수는 내일 서울에서 *아직 민정이를 만날 것이다.
ㄴ. 민수는 내일 서울에서 여전히 민정이를 만날 것이다.
ㄷ. 민수는 내일 서울에서 ?여태 민정이를 만날 것이다.

(22)는 ‘민수는 내일도 민정이를 만날 것’이라는 사건에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한 문장이다.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인 ‘-을 것이-’와 (22ㄱ)에서 ‘아직’과의 결합은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22ㄴ)에서 ‘여전히’는 자연스러운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22ㄷ)에서 ‘여태’는 ‘아직’보다는 ‘-을 것이-’와 어느 정도 공기가 자연스럽다고 보이지만 ‘여전히’만큼 의미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음 예문 (23)문장에서도 예문 (22)와 유사한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 ㄱ. 다음 달에 *아직 운전할 거야?
ㄴ. 다음 달에 여전히 운전할 거야?
ㄷ. 다음 달에 *여태 운전할 거야?

(23)은 화자가 ‘다음 달에 운전을 할 것인지’ 묻는 사건에 ‘아직’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때 ‘여전히’를 제외하고 ‘아직’과 ‘여태’의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것이-’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아직’류 시간 부사는 ‘여전히’만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는 세 부사의 상적 속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3.2.2. ‘아직’류와 상 문법 형태 공기

3.2.2.1. ‘-어 있-’

(24) ㄱ.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제의 문제로 남아 있다.
ㄴ.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미제의 문제로 남아 있다.
ㄷ. 이런 부분들은 여태 미제의 문제로 남아 있다.

(24)는 ‘이런 부분들은 미제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사건에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된 모습을 보인다. 결과상 문법 형태 ‘-어 있-’과의 공기는 ‘아직’류 시간부사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다음 (25) 같은 문장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 양상을 나타낸다.

(25) ㄱ. 민정이의 강아지는 *아직 죽어 있다.
ㄴ. 민정이의 강아지는 *여전히 죽어 있다.
ㄷ. 민정이의 강아지는 *여태 죽어 있다.

(25)는 ‘민정이의 강아지는 죽어 있다.’라는 문장에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할 경우 모두 어색한 의미 해석을 보이고 있다. (24)의 문장들이 ‘아직’류의 상적 속성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면, (25)은 반대로 ‘아직’, ‘여전히’, ‘여태’가 나타내는 상적 속성이 ‘죽다’라는 동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기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다’, ‘죽다’ 등의 동사가 지닌 의미 속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남다’와 달리 ‘죽다’는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직’류 시간부사는 사건의 변화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와 공기 제약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2.2.2. ‘-고 있-’

앞서 결과상 문법 형태 '-어 있-'과 결합한 '아직'류 시간 부사들은 같은 공기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진행상 문법 형태인 '-고 있-'과의 결합은 어떤 의미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음 (26)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6) ㄱ. 민수는 식당에 도착한 후 아직 먹고 있다.
ㄴ. 민수는 식당에 도착한 후 여전히 먹고 있다.
ㄷ. 민수는 식당에 도착한 후 여태 먹고 있다.

(26)은 '민수는 식당에 도착한 후 먹고 있다.'는 사건에 '아직'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진행상 문법 형태 '-고 있-'과 세 시간 부사 모두 매우 자연스러운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7)과 같은 의문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유지된다.

(27) ㄱ. 민호는 아직 집을 짓고 있니?
ㄴ. 민호는 여전히 집을 짓고 있니?
ㄷ. 민호는 여태 집을 짓고 있니?

(27)에서 '민호가 집을 짓고 있니?'라는 사건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한 문장은 화자가 생각하는 사건 지속의 시점이 현재 사건이 지속되는 시점과 다르다는 화자의 평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다. 이 때 '아직', '여전히', '여태'가 다른 시상 문법형태에 비하여 '-고 있-'과 가장 자연스럽게 공기하고 있는 현상은 '-고 있-'이 나타내는 '진행상'의 문법 범주와 '아직'류의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결과상 문법 형태인 '-어 있-'과의 공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국 '아직'류 시간 부사는 상 문법 형태 '-어 있-', '-고 있-'과 특정 동사 부류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연스럽게 공기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3. 소결

본 장에서는 ‘이미’류와 ‘아직’류 부사들이 시제 문법 형태 ‘-었-’, ‘-느/Ø-’, ‘-을 것이-’와 상 문법 형태 ‘-어 있-’, ‘-고 있-’과 공기하면서 두 부류의 부사들이 지닌 상적 속성이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미’류 시간부사와 시상 문법 형태의 공기 양상에서 주목할 점은 ‘이미’류 시간 부사 모두 과거 시제 문장에서 ‘완료’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부정문에서는 ‘진작’만이 공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이미’류가 가진 상적 속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한편 현재 또는 미래 시제에서 동작동사나 순간동사등과 공기할 경우, ‘이미’류의 상적 속성과 상반되는 동사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는 자연스러운 공기 양상을 보였다.

‘이미’류 시간 부사와 ‘결과상’ 문법형태인 ‘-어 있-’과의 공기는 가장 자연스러웠으나, 진행상 ‘-고 있-’과의 공기에서는 부정문에서 ‘진작’을 제외한 두 시간 부사의 공기 제약이 있었다. 이때 공기 제약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류의 상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밝혀졌다.

‘아직’류 시간 부사과 시제 문법 형태와의 공기 양상에서 ‘-었-’과 공기하는 ‘여전히’와 ‘여태’의 의미들이 상적 속성이 아닌 양태적 속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한편 ‘여전히’는 ‘아직’류 시간 부사 중에서 ‘-을 것이-’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부사였는데, 이는 ‘여전히’의 의미가 다른 두 부사에 없는 양태적 속성으로 문장에서 실현되기 때문이었다.

‘아직’류 시간 부사와 상 문법 형태 공기 양상을 살펴보면 결과상 ‘-어 있-’과 진행상 문법 형태 ‘-고 있-’ 모두와 대부분 자연스럽게 공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동사 부류에서 ‘아직’류 시간 부사가 결합할 경우 그 의미가 어색한 경우도 관찰되었다.

4. ‘이미’류와 ‘아직’류의 양태적 속성

2장에서 논의한 시간 부사의 양태적 속성, 그리고 양태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시간 부사 ‘이미’류와 ‘아직’류는 양태의 하위 범주 중에서 감정 양태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4.1절에서는 양태의 하위 범주로서 감정 양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알아볼 것이다. 이후 4.2절에서는 ‘이미’류 시간 부사가 지닌 감정 양태적 속성을, 4.3절에서는 ‘아직’류 시간 부사에 나타나는 감정 양태적 속성을 살펴본다.

4.1. 감정 양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감정 양태(emotional modality)’를 양태의 하위 범주로 설정한 연구로는 고영근(1981, 1986), 이선웅(2001), 문병렬(2007), 박진호(2011ㄱ), 임채훈(2009) 등이 있다.

고영근(1981)에서는 중세 국어 선어말어미에서 ‘-옷/돗-’이 ‘화자가 사태를 경이의 대상으로 파악할 때’ 사용되며 이 때 선어말어미의 의미를 ‘감탄’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즉, 선어말어미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가 ‘감정’이라는 하나의 의미 범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선웅(2001)에서는 격조사,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보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를 모두 ‘정감 양태’라는 범주 아래에 두고 각각의 문법 기능을 구분하였다. 이선웅(2001)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정감 양태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로 보는 입장이며, 대우법 관련 형식도 이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양태의 하위 범주로서 ‘감정 양태’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문병렬(2007: 55)에서는 사건 양태의 하위 범주 중 하나로 ‘평가 양태’를 도입하고 있다. 평가 양태란 사건 발생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범주를 말

한다. 평가 양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분되는데, 문병렬(2007)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보문 구성으로 각각 '-어 주-' 구성과 '-ㄴ/는/ㄹ 노릇이-', '-는/ㄹ 지경이-', '-는/ㄹ 판이-', '-어 대-', '-어 쌓-', '-어 버리-'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문법 형식이 사용된 예들은 다음과 (1)과 같다.[13)]

(1) ㄱ. 그때 전깃불이 들어와 카페 안을 골고루 밝혀 주었다.
ㄴ.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 노릇이다.
ㄷ. 전자, 기계 등 주요 부품을 거의 의존하고 있어, 공급 중단 땐 공장 문을 닫을 판이다.
ㄹ. 안타깝고 초조하다 못해 나는 그만 울고 싶을 지경이었다.
ㅁ. 정말 케케묵은 이론을 떠들어 대고 있군요.
ㅂ. 아이가 울어 쌓는다.
ㅅ.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멋대로 고쳐 버렸다.

(1)은 감정 판단 양태의 문법 형태가 결합된 예문들이다. (1ㄱ)의 '-어 주-'는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감정 판단 양태로 실현되고 있다면, (1ㄴ-ㅅ)에서 실현되는 '-ㄴ 노릇이-', '-ㄹ 판이-', '-ㄹ 지경이-', '-어 대-', '-어 쌓-', '-어 버리-'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감정 양태의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박진호(2011ㄱ)에서는 감정 양태를 양태의 독립된 하위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 박진호(2011ㄱ)에서 말하는 감정 양태는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감정 양태의 예는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한편 임채훈(2009: 57)에서는 감정 양태를 '사건 평가 양태성'을 지닌 양태로 설명하고 있다. 즉, 감정 양태는 화자가 사건에 대해 긍정적(good) 혹은 부정적(bad) 평가를 내리는 양태적 속성이라는 설명이다.

감정 양태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문법 범주에 나타나는 양태적 속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미'류와 '아직'류 시간 부사도 이러한 감정 양태

13) (1)의 예들은 제37차 한국어의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문병렬(2015)에서 가져온 것이다.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두 부사류가 지닌 양태적 속성은 상적 속성과 엄연히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을 단지 부사가 지닌 하나의 어휘적 의미로만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긍정'과 '부정'이라는 감정의 이분법 체계에서 '중립'이라는 감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여기서 '중립'이란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그 사건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감정이다.

'이미'류와 '아직'류 시간 부사는 이들의 상적 속성에 따라 각각 '사건 완료 중심'과 '사건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간적 범위에서 각 부사들의 양태적 속성이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4.2. '이미'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

본 절에서는 시간 부사 '이미'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을 통하여 3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세 부사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미'류 시간 부사는 사건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완료 시점이 화자의 예상하는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화자는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감정적 반응은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으로 각각 다르게 실현된다.

(2) ㄱ. 이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ㄴ.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ㄷ. *진작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2)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사건에 '이미', '벌써'는 해석이 자연스럽지만, '진작'은 어색하다. 이 때 '이미'는 10년이 세월이 흐른 사건에 대하여 화자의 반응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즉, '이미'는 감정의 반응 정도와

‘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같은 비율로 문장에서 의미 실현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벌써’는 사건 완료 시점이 화자가 예상한 시점 보다 빠르게 지나간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긍정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 ‘벌써’의 의미 특성은 특히 ‘완료’라는 상적 속성보다 감정 양태적 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진작’은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반응이라는 감정 반응 양태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문 (2)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로 실현될 수 없는 양상을 보인다.

위와 같이 ‘이미’류의 시간 부사는 각각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서로 다른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문장에서 실현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4.2.1.절에서는 ‘이미’, 4.2.2.절에서는 ‘벌써’, 4.2.3. 절에서는 ‘진작’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감정 양태적 속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4.2.1. ‘이미’: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중립적 판단과 단정

‘이미’는 ‘벌써’와 ‘진작’보다 ‘이미’류 부사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적 속성과 감정 양태적 속성이 균등하게 나타난다. 다음 예문 (3)는 ‘이미’의 이러한 양태적 속성을 구별하는 문장들이다.

(3) ㄱ. 이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ㄴ. 이미 끝난 일이다.
ㄷ. 철수는 ?이미 점심을 먹는다.
ㄹ. 왜 *이미 집에 가니?

(3ㄱ)과 (3ㄴ)은 ‘이미’가 나타내는 ‘완료’의 상적 속성과 감정 양태적 속성, 다시 말해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화자의 중립적 반응이 어떤 비율로 실현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과 어떤 일이 끝났고 다시 시작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화자의 태도는 단순히 ‘완료’의 상적 속성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어떤

사건이 완료되었고, 그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 높은 긍정의 반응을 보이거나 낮은 부정의 반응이 아닌 완료된 시점에 대한 중립적 판단과 단정적 태도를 '이미'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3ㄷ)에서는 '이미'가 다소 어색하게 문장에서 실현된다. 이는 화자의 감정 양태적 속성보다 '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현재 시제 문법 형태 '-느-'와 자연스럽게 공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이미'의 상적 속성이 문장에서 실현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3ㄹ)도 (3ㄷ)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음 예문 (4)과 같은 문장에서도 '이미'는 '벌써', '진작'과 다른 양태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ㄱ. 내가 그때 ?이미 엄두를 내지 못했어.
ㄴ. 내가 그때 *벌써 엄두를 내지 못했어.
ㄷ. 내가 그때 진작 엄두를 내지 못했어.

(4)는 '내가 그 때 엄두를 내지 못한' 사건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세 시간 부사가 시제 문법 형태 '-었-'이 결합한 문장에서 (4)과 같이 서로 다른 공기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들의 상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4)의 사건은 화자가 어떤 일에 대하여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곧 화자가 예상한 사건 완료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양태적 속성을 지닌 시간 부사는 '진작'이기 때문에 (4)의 문장에서는 '진작'만이 가장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반면 '벌써'는 화자가 예상한 사건 완료 시점보다 빠르게 완료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는 양태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4ㄴ)에서 의미가 충돌하여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못한다. '이미'는 벌써와 비교했을 때 긍정이 아닌 중립적 판단을 보이지만, (4)문장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의미는 '화자의 부정적 반응이

기 때문에 ‘이미’ 역시 다소 어색한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가 가지고 있는 감정 반응 양태의 속성은 다음 예문 (5)와 같은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5) ㄱ.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ㄴ. 결과는 ?벌써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ㄷ. 결과는 *진작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5)는 ‘결과는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의문에 ‘이미’류 시간 부사 ‘이미’, ‘벌써’, ‘진작’이 결합한 문장이다. (5)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의미는 ‘이미’가 결합한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다.

(5)에서 화자가 발화하는 상황은 어떤 시험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 완료 되었고, 그 사건에 대하여 화자가 예상하는 어떤 시간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 화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5ㄱ)의 ‘이미’가 (5ㄴ)과 (5ㄷ)보다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4.2.2. ‘벌써’: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의외와 놀라움

‘벌써’는 ‘이미’류 시간 부사 중에서 상적 속성보다 양태적 속성의 의미가 문장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실현되는 부사이다. 그만큼 ‘이미’와 ‘진작’과 비교하여 여러 시상 문법 형태에서 공기가 가능한 부사이기도 한다.

(6) ㄱ. 집에 갔어?
ㄴ. 밥을 다 먹고 있어?
ㄷ. 시험 준비 하는 거야?

(6)에서 ‘벌써’는 각각 (6ㄱ)에서 ‘집에 갔어?’, (6ㄴ)에서 ‘밥을 다 먹고 있어?’, 그

리고 (6ㄷ)에서 '시험 준비 하는 거야?'라는 문장이다. 각각의 문장은 '예' 또는 '아니요'를 묻는 상황이다. 그러나 '벌써'가 결합되면 위 문장은 예문 (6′)처럼 전혀 다른 의미 해석을 보이게 된다.

(6′) ㄱ. 벌써 집에 갔어?
ㄴ. 밥을 벌써 다 먹고 있어?
ㄷ. 벌써 시험 준비 하는 거야?

(6′)는 (6)의 문장에 '이미'류 시간 부사 '벌써'가 결합된 문장이다. (6)의 문장들은 화자의 물음에 대한 청자의 '예' 또는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면, (6′)에서는 화자가 예상한 시간보다 사건이 완료된 시점에 빠른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나타나는 반응의 정도는 중립이나 부정적이 아닌 긍정의 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는 각각의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감정 양태적 속성을 나타낸다. 먼저 (6′ㄱ)에서 '벌써 집에 갔어?'라는 표현은 화자가 예상한 청자의 집에 가는 사건의 완료 시점, (6′ㄴ)에서 '밥을 벌써 다 먹고 있는 거야?'는 화자가 예상한 화자가 밥을 다 먹은 사건의 완료 시점, 마지막으로 (6′ㄷ)에서 '벌써 시험 준비 하는 거야?'는 화자가 예상한 청자가 시험 준비를 시작한 행동이 완료된 시점보다 모두 실제 완료된 시점이 빠른 것에 대한 의외와 놀라움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벌써'의 감정 양태적 속성은 의문문에서 가장 잘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문문에서만 '벌써'의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 (7)과 같은 문장에서도 '벌써'의 양태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7) ㄱ. 초저녁인데 벌써 밤이슬이 내렸다.
ㄴ.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ㄷ. 그는 벌써 의젓한 중년남자가 되었다.

(김선희 1987: 46)

(7)은 (6′) 문장과 비교했을 때 ‘벌써’의 감정 양태적 속성과 ‘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느 한 쪽의 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문장이다. 평서문은 이러한 의미 특성의 구별이 의문문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완료’라는 상적 속성과 ‘화자의 예상시보다 사건 완료 시점이 빠른 것에 대한 의외와 놀라움’이라는 양태적 속성 중 어떤 속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와 ‘진작’이 같은 문장 형식에서 결합한 경우 ‘벌써’의 양태적 속성은 다음 예문 (8)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8) ㄱ. 민수가 ?이미 기침을 한다.
ㄴ. 민수가 벌써 기침을 한다.
ㄷ. 민수가 *진작 기침을 한다.

(8)은 ‘민수가 기침을 하는’ 사건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8ㄴ)에서 ‘벌써’는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반면 (8ㄱ)의 ‘이미’와 (8ㄷ)의 ‘진작’은 매우 어색한 의미 해석으로 나타난다.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미’와 ‘진작’은 ‘완료’라는 상적 속성, 즉 사건의 완료 시점을 나타내고 그 완료 시점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 중심에 놓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가능했는데, ‘벌써’가 어떤 이유로 (8ㄴ)처럼 자연스러운 문장 해석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적 속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 때 ‘벌써’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감정 양태적 속성이 실현되는 비중이 ‘벌써’가 지닌 상적 속성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수가 기침을 할 것이라고 화자가 예상한 시간 보다 빨리 기침을 한 사건에 대하여 화자는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바로 ‘벌써’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양태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9) ㄱ. 왜 ?이미 집에 가지?
ㄴ. 왜 벌써 집에 가지?
ㄷ. 왜 *진작 집에 가지?

(9)는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하면 화자는 집에 가는 이유가 아닌 화자가 예상하는 사건 완료 시점보다 빨리 사건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화자는 청자가 집에 간다는 사건 완료 시점이 화자가 예상한 완료 시점보다 빠르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양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사는 ‘이미’류 시간 부사 중에서 ‘벌써’가 유일하다. 이러한 반응이 ‘이미’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럴 경우에 화자의 감정 반응 정도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진작’이 가지고 있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공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벌써’는 ‘이미’류 시간 부사 중에서 감정 양태적 속성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며, 문장에서 ‘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드러나는 빈도보다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의외와 놀라움이라는 감정 양태적 속성이 실현되는 빈도가 더 높은 시간 부사임을 밝혔다.

4.2.3. ‘진작’: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앞서 3장에서 관찰된 ‘진작’의 의미는 ‘이미’와 ‘벌써’와 비교하여 상적 속성보다 양태적 속성으로 실현되는 빈도가 높은 부사임을 밝혔다. ‘진작’의 양태적 속성에 대하여 김선희(1987 :42)에서는 다음 예문 (10)과 같은 예로 설명하고 있다.

(10) ㄱ. 전염병이 퍼지기 전에 *진작 예방하자.
ㄴ. 전염병이 퍼지기 전에 *진작 예방했다.
ㄷ. 전염병이 퍼지기 전에 진작 예방할걸.

(김선희 1987: 42)

(10)에서 ‘진작’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청유문이나 과거 시제 문법 형태 ‘-었-’과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은 의미 해석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진작’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문장 해석은 '진작'의 양태적 속성에서 비롯된다. '진작'은 '사건 완료가 화자가 예상한 완료 시점보다 늦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아쉬움'이라는 감정 반응 양태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시간 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작'의 양태적 속성 실현 양상은 다음 예문 (11)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11) ㄱ. 왜 *이미 말을 안했어?
ㄴ. 왜 *벌써 말을 안했어?
ㄷ. 왜 진작 말을 안했어?

(11)은 '왜 말을 안했어?'라는 의문문에 '이미', '벌써', '진작'이 결합한 문장이다. (11ㄱ)과 (11ㄴ)의 '이미'와 '벌써'가 자연스럽게 공기하지 않는 반면에, (11ㄷ)에서 '진작'은 매우 자연스러운 의미 해석을 보이고 있다. (11)의 상황은 화자에게 청자가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인데, 이는 사건의 완료 시점이 화자가 예상한 시점 보다 늦은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진작'의 감정 양태적 속성과 가장 적절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진작'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과만 공기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진작'의 양태적 의미에서 더 나아간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12) ㄱ. 민호가 *이미 가서 기다렸으면 만날 수 있었을 걸.
ㄴ. 민호가 ?벌써 가서 기다렸으면 만날 수 있었을 걸.
ㄷ. 민호가 진작 가서 기다렸으면 만날 수 있었을 걸.

(12)는 '민호가 가서 기다렸으면 만날 수 있었을 걸'이라는 사건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각각 결합한 문장이다. 이 때 문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시간 부사는 '진작'이다. '진작'은 '-을 걸'이라는 어미와 결합하여 '완료'라는 상적 속성보다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아쉬움'이라는 감정 반응 양태의 속성을 더욱 명확하게 문장에서 실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진작’의 양태적 속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장도 다음 예문 (13)과 같이 존재한다.

(13) ㄱ. 민호는 이미 학생이다.
ㄴ. 민호는 벌써 학생이다.
ㄷ. 민호는 ?진작 학생이다.

(13)은 ‘민호는 학생이다’라는 사건에 ‘이미’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와 ‘벌써’가 문장 해석은 자연스러운 반면에, ‘진작’은 다소 어색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때 (13)에서 ‘이미’와 ‘벌써’가 현재 시제 문장과 자연스럽게 공기하고, ‘진작’만 어색한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앞선 현재 시제 문법 형태 ‘-∅-’과의 공기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미’류 시간 부사는 기본적으로 ‘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벌써’, ‘진작’은 사건의 완료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완료 되지 않은 사건과 결합할 때 모두 자연스럽지 못한 양상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만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는 바로 ‘진작’이 가지고 있는 감정 양태적 속성 때문일 것이다. ‘진작’의 이러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예상한 완료 시점보다 사건이 늦게 완료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민호가 학생이다’라는 사건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가지고 이지 않다.

반면에 ‘이미’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중립적 반응이라는 양태적 속성이 실현됨과 동시에 ‘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균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다. ‘벌써’ 또한 민호가 학생이 된 사건이 화자가 예상한 시점보다 빨리 완료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이미’류 시간 부사의 양태적 속성의 차이는 다음 예문 (14)에서 ‘진작’이 공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4) ㄱ. 내일이면 ?이미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
ㄴ. 내일이면 벌써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

ㄷ. 내일이면 *진작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

(14)는 '내일이면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사건에 대하여 '이미'류 시간 부사가 각각 결합한 문장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4ㄷ) '진작'은 문장에서 어색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14) 또한 (13)과 마찬가지로 '진작'이 내재하고 있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아쉬움이라는'의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인하여 문장 성립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4.3.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

본 절에서는 시간 부사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 속성을 통하여 3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세 부사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직'류 시간 부사의 상적 속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완료'라는 속성이다. 즉, 사건이 완료되지 않고 지속되는지의 여부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직'류 시간 부사의 기본적인 의미이다. 그런데 이때 사건 지속 가능성 대하여 화자는 감정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시간 부사 '아직', '여전히', '여태'에서 각각 다르게 실현된다.

(15) ㄱ. 배트맨은 아직 나의 영웅이야.
ㄴ. 배트맨은 여전히 나의 영웅이야.
ㄷ. 배트맨은 여태 나의 영웅이야.

(15)는 '배트맨은 영웅'이라는 사건에 대하여 '아직'류 시간 부사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한 양상이다. (15)는 세 부사 모두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하지만 이들을 '아직'류의 상적 속성인 '미완료'라는 공통된 속성으로 설명하기에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류가 같은 문법 형태에서 '완료'라는 공통된 상적 속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과 다른 접근 방법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아직'류의 양태적 속성이 '이미'류와 다른 이유이기도 한다. 우선 (15ㄱ)에서 '아직'

은 배트맨이 나의 영웅이고, 발화시 이후에도 계속 나의 영웅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즉, 사건 지속에 대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15ㄴ)에서 '여전히'가 결합한 문장의 경우는 다르다. '배트맨은 여전히 나의 영웅'이라는 문장은 발화시 이후 배트맨이 앞으로도 나의 영웅일 것이라는 사건 지속의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15ㄷ)의 '배트맨은 여태 나의 영웅'이라는 문장에서 '여태'는 배트맨이 발화시까지는 영웅이었으나, 앞으로 계속 배트맨이 나의 영웅이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15)에서 나타나는 '아직'류 시간 부사의 양태적 속성을 정리하면 <표 7>와 같다.

<표 7>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

시간 부사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
아직	발화시 이후 앞으로 계속 배트맨이 나의 영웅일지 아닐지 지속 여부에 대해 중립적 판단과 단정. 즉,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냄.
여전히	발화시 이후 앞으로 계속 배트맨이 나의 영웅일 것이라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소망을 나타냄.
여태	발화시 이후 앞으로 계속 배트맨이 나의 영웅일 것이라는 상황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정적 반응과 원망을 나타냄.

한편 '여태'는 의문문에서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양태적 속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아직'이 보조사 '도'와 결합하면 '여태'와 같은 양태적 속성을 지닐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16) ㄱ. 배트맨이 여태 너의 영웅이니?
ㄴ. 배트맨이 아직도 너의 영웅이니?

(16)은 '배트맨이 너의 영웅이니?' 라고 묻는 의문문에 '여태'와 '아직도'가 결합한 문장이다. '여태'는 문장유형 중 의문문에서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여태'와 같은 의미로 '아직'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때 '도'는 부정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의 문법 형식이기도 하다. 이밖에 '까지'과 결합한 '아직까지'도 문장에서 성립할 수 있다.[14)]

이와 같은 맥락으로 4.3.1.절에서는 '아직', 4.3.2.절에서는 '여전히', 4.3.3. 절에서는 '여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감정 양태적 속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4.3.1. '아직':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립적 판단과 단정

'아직'은 사건 지속에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중립적 판단과 단정이라는 감정 양태적 속성을 가진 시간 부사로 분류 할 수 있다. 즉 '아직'은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17) ㄱ. 동생이 아직 잠을 잔다.
ㄴ. 아직 점심시간이 한 시간 남았죠?

---

14) '아직'에 보조사 '도'와 '까지', '는'이 결합하여 문장에서 실현될 경우 '여태'와 유사하게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모든 문장에서 여태와 같은 양태적 속성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ㄱ. 아직도 뭘 먹을지 고르고 있는 거야?
ㄴ. 민호랑 민희는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야.
ㄷ. 아직은 시간이 있어.

(1)은 '아직'이 보조사 '도', '까지', '는'과 결합한 문장이다. 이들의 의미 또한 각각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간 부사와 보조사 결합에 따른 의미 차이는 추후 남은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ㄷ. 모르겠어. 아직 전화 안 해봤어.
ㄹ. 나는 비행기 아직 안 타봤어.

(17)에서 실현되는 '아직'의 감정 양태적 속성은 모두 사건 지속 여부에 대한 중립적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17ㄱ)은 동생이 아직 잠을 자고, 앞으로 잠을 계속 잘지 깨어날지 모른다는 단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17ㄴ)은 아직 점심시간이 한 시간 남았는지 여부를 묻는 상황에서 화자는 발화시 이후 한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는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또한 (17ㄷ)의 경우 아직 전화를 안 해본 상황에서 화자는 앞으로 전화를 할 상황으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중립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7ㄹ)의 경우 화자는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으나 앞으로 타지 않은 사건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 부사 '아직'이 사건 지속에 가능성에 대한 중립적 판단을 나타내는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다음 예문 (18)과 같이 문장과 결합이 어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8) ㄱ. 민정이는 ?아직 예뻤다.
ㄴ. 민정이는 여전히 예뻤다.
ㄷ. 민정이는 *여태 예뻤다.

(18)는 '민정이는 예뻤다'라는 사건에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된 문장이다. (18ㄱ)의 '아직'과 (18ㄷ)의 '여태'는 두 부사의 '미완료' 상적 속성으로 인하여 '-었-'과의 공기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이 때 '아직'이 가지고 있는 양태적 속성으로도 위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즉 '민정이가 예뻤다'라는 과거의 사실은 과거에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 민정이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한 문장이다. 즉, 과거 민정이는 예뻤는데, 지금까지 예쁜지 예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전히'는 발화하는 순간까지 민정이가 예뻤으며, 앞으로 민정

이가 예쁘다는 사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으로 실현된다. 반면 '아직'은 민정이가 예뻤지만 앞으로도 예쁠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아직'의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이 실현되는 비중이 '사건 지속에 가능성에 대한 중립적 평가'라는 감정 양태적 속성보다 '미완료'이 상적 속성이 더 크게 문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감정적인 측면은 다소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태'도 마찬가지로 '사건 지속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양태적 속성이 문장에서 완벽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속성이 '-었-'과 의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먼저 일어나면서 의미 해석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3.2. '여전히':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소망

'여전히'는 앞서 3장에서 '아직'과 '여태'와 비교하여 여러 시상 문법 형태와 공기 제약이 가장 적은 부사임을 밝혔다. 그런데 '여전히'가 다음 예문 (19)의 부정문에서 관찰되는 공기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19) ㄱ. 동생이 여전히 잠을 잔다.
ㄴ. 여전히 점심시간이 한 시간 남았죠?
ㄷ. 모르겠어. *여전히 전화 안 해봤어.
ㄹ. 나는 비행기 ?여전히 안 타봤어.

(19)는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가 결합한 문장이다. (19ㄱ)는 동생이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깨지 않고 잠을 잘 것이라는 사건 지속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기대가 나타나는 문장이다. 또한 (19ㄴ)은 점심시간이 한 시간 남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화자는 앞으로 한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19ㄷ)은 전화를 해보지 않은 사건이 앞으로 지속되는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한

편 (19ㄹ)은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앞으로도 같은 경험이 이어질 것이라는 문장 해석은 다소 어색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19ㄱ)과 (19ㄴ)은 시간 부사 '여전히'가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감정 양태적 속성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문장이라면, (19ㄷ)과 (19ㄹ)은 정반대의 경우로 '여전히'의 감정 양태적 속성이 문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장에서 '여전히'가 가지고 있는 양태적 속성만이 결합 가능한 경우도 있다.

(20) ㄱ. 민수는 ?아직 착하다.
ㄴ. 민수는 여전히 착하다.
ㄷ. 민수는 *여태 착하다.

(20)은 '민수는 착하다'는 사건에 '아직'류 시간 부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20)의 문장들은 앞서 과거시제 문법 형태 '-었-'과 결합한 '민정이는 예뻤다'에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한 문장과 같은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아직'과 '여태'가 자연스럽게 공기하지 못하는 문장에 '여전히'만 유일하게 어색하지 않은 의미 해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과거 시제 문법 형태 '-었-'과 '아직', '여태'가 공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과 '여태'가 지닌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 때문이다. 현재 시제 문법 형태 '-Ø-'가 결합한 문장은 과거 시제 문장처럼 완료된 사건이 아님에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가 유일하게 (20)과 같은 문장에서 공기한다는 점은 '여전히'가 지니고 있는 양태적 속성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20ㄴ)에서 '민수는 여전히 착하다'는 '민수가 착하다'는 사건에 '여전히'가 결합함으로서 앞으로도 민수가 착할 것이라는 사건 지속이 지속되길 바라는 긍정적 기대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반면 '아직'이나 '여태'는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이 양

태적 속성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면서 현재 시제 문장과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3.3. ‘여태’: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원망

‘여태’는 앞서 3장에서 ‘아직’과 ‘여전히’와 비교하여 시상 문법 형태와 공기 제약이 가장 큰 부사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여태’가 지닌 양태적 속성이 다른 두 부사와 달리 특정 상황에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예문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ㄱ. 철수 왜 여태 안와.
ㄴ. 여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니.

(21)은 ‘철수가 왜 안와’라는 상황과 ‘정신을 차리지 못하단.’라는 상황에 ‘여태’가 결합한 문장이다. (21ㄱ)은 ‘여태’가 결합할 경우 철수가 오지 않는 상황이 발화시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화자의 부정적 반응과 원망이 드러나고 있다. (21ㄴ) 또한 마찬가지로 ‘여태’가 결합한 ‘여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니’라는 문장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화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양태적 속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태’의 이러한 양태적 속성은 예문 (22)와 같은 의문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실현되고 있다.

(22) ㄱ. 너 지금 여태 그 결론 내온거야?
ㄴ. 여태 뭐 들었어요?

(22)는 ‘여태’가 ‘너 지금 그 결론 내온거야?’와 ‘뭐 들었어요?’라는 문장에 결합함으로써 명확하게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여태’의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은 (22′)과 같이 ‘여태’ 대신 ‘지금까지’로 대체할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2′) ㄱ. 너 지금 지금까지 그 결론 내온거야?
ㄴ. 지금까지 뭐 들었어요?

한편 이와 달리 ‘여태’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사이 다소 어색한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예문 (23)의 (23ㄷ)과 같은 문장이다.

(23) ㄱ. 민수는 내일 서울에서 *아직 민정이를 만날 것이다.
ㄴ. 민수는 내일 서울에서 여전히 민정이를 만날 것이다.
ㄷ. 민수는 내일 서울에서 ?여태 민정이를 만날 것이다.

(23)는 ‘민수는 내일도 서울에서 민정이를 만날 것이다.’라는 사건에 ‘아직’, ‘여전히’, ‘여태’가 결합한 문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인 ‘-을 것이-’와 ‘아직’과의 결합은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공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태’는 ‘아직’ 보다는 ‘-을 것이-’와 어느 정도 공기한다고 보이지만 ‘여전히’만큼 의미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 양상의 차이는 ‘여태’가 가지고 있는 감정 양태적 속성이 문장의 기본 의미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4.4. 소결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유형화한 문제들 중 시제와 상 문법 형태 공기 양상으로 설명되지 못한 ‘이미’류와 ‘아직’류의 의미 차이를 양태적 속성으로 풀고자 하였다. 2장에서 논의한 시간 부사에 나타난 양태적 속성, 그리고 양태의 분류 체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두 부사류는 양태의 하위 범주 중에서 감정 양태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류와 ‘아직’류는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을 모두 나타내는 시간 부사류이지

만 두 가지 속성이 문장에서 동시에 부각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한 속성이 문장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미'류와 '아직'류의 의미 차이는 어느 한 속성만으로 의미 차이를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다. 본 장에서는 두 시간 부사류가 문장에서 실현될 때 '상적 속성'보다 '양태적 속성'이 더 부각되는 문장 유형들이 존재함을 밝혔고, 두 부사류는 시간의 객관적 정보 제시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즉 양태적 속성으로 각각의 의미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미'류는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실현되었고, '아직'류는 사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감정 판단 양태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미'류와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이미'류와 '아직'류의 감정 양태적 속성

시간 부사	**시간 범위**	**감정 양태적 속성**
이미	사건 완료 시점	중립적 판단과 단정
벌써		의외와 놀라움
진작		후회와 아쉬움
아직	사건 지속 가능성	중립적 판단과 단정
여전히		긍정적 기대와 소망
여태		부정적 반응과 원망

5. 결론

본고는 국어의 시간 부사 ‘이미’와 ‘아직’ 그리고 이들과 유의관계에 있는 ‘벌써’, ‘진작’, ‘여전히’, ‘여태’를 ‘이미’류와 ‘아직’류로 범주화한 후 각 부류의 시간 부사들의 의미 특성을 시상 문법 형태 공기 양상으로 살펴보고, 이로 설명되지 않는 각 부사들의 의미 차이를 양태적 속성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상적 속성을 가진 시간 부사들 중에서 그들의 의미 차이 기술이 시제나 상이 아닌 양태적 속성으로 설명 가능한 부사들이었다. 시간 부사들 중에서 상적 속성을 가진 부사들은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한 시간 부사는 ‘이미’, ‘벌써’, ‘진작’, ‘아직’, ‘여전히’, ‘여태’였다. ‘이미, 벌써, 진작’과 ‘아직, 여전히, 여태’는 각각 소위 ‘완료’와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을 가진 시간 부사로 알려져 있듯이, 이들의 상적 속성은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그 의미 차이를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제였다.

2장에서는 시간 부사와 상, 그리고 시간 부사와 양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상과 양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상과 양태가 시간 부사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 부사에서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이미’와 ‘아직’은 각각 ‘완료’와 ‘미완료’의 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과 유의관계에 있는 ‘벌써’, ‘진작’, ‘여전히’, ‘여태’ 또한 같은 상적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미’와 ‘아직’과 관련된 양태적 속성에 대하여 양태의 하위 분류 체계 중 ‘감정 양태’ 에 주목하였고, 본고에서는 ‘감정 양태’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각각 ‘이미’류와 ‘아직’류 시간 부사에 감정 양태적 속성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2장 마지막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사전적 정의와 이들이 어떤 의미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찰한 후, 이들과 유의 관계에 있는 ‘벌써, 진작’과 ‘여전히, 여태’를 함께 묶어 각각 ‘이미’류와 ‘아직’류로 체계화 하여 그들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범주를 만들었다.

3장에서는 ‘이미’류와 ‘아직’류가 시상 문법 형태와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두 부사류는 '완료'의 상적 속성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성분인 현재 관여성(present relevance)와 관련이 있었으며, 발화시를 기준으로 '이미'류는 사건 완료 시점 중심, '아직'류는 사건 지속 중심을 나타내는 시간적 표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혔다.

3장에서 다룬 시상 문법 형태 공기 양상은 각각 시제 문법형태('-었-', '-느/Ø-', '-을 것이-')와 상 문법 형태('-어 있-', '-고 있-')가 결합된 문장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때 '이미'류와 '아직'류 부사에서 이들의 '완료'와 '미완료'라는 상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러한 두 부사류와 시상문법 형태 공기 양상을 문장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유형화한 문제들 중 시제와 상 문법 형태 공기 양상으로 설명되지 못한 '이미'류와 '아직'류의 의미 차이를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미'류와 '아직'류는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을 모두 나타내는 시간 부사들이지만, 문장에서 어떤 속성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의미 해석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즉, '이미'류와 '아직'류의 의미 차이는 어느 한 속성만으로 의미 차이를 해석하기보다 각 부사류의 양태적 속성이 문장에서 어느 정도로 실현이 되며, 이 때 나타나는 감정 양태적 속성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결국 두 시간 부사류가 문장에서 실현될 때 '상적 속성'보다 '양태적 속성'이 더 부각되는 문장 유형들이 존재하였고, 이 때 '이미'류와 '아직'류는 시간의 객관적 정보 제시뿐만 아니라 화자의 감정적 태도, 즉 감정 양태적 속성으로 각각의 의미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미'류와 '아직'류의 양태적 속성은 각각 '사건 완료 시점에 대한 감정 양태'와 '사건 지속에 대한 감정 양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남은 문제는 먼저 '이미'류와 '아직'류에 포함되지 않은 '미리', '앞서', '기왕', '미처' 등과 같은 부사들의 의미 차이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류와 '아직'류가 보조사와 결합할 경우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더욱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적 속성과 양태적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다른 시간 부사들에 관한 의미 특성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1),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논저류 >

강현화(1999), “부사의 사전적 처리”, 《사전편찬학연구》 9(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77-100.

고영근(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고영근(2014), 《표준국어문법론》 제4판, 박이정.

권선옥(1985), "한국어 시간 부사어의 의미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상태(2005), 《현대국어 시간표현 어휘 연구-시간 부사의 형태·의미·계량적 접근을 중심으로》, 학고방.

김선희(1987), “현대국어의 시간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수(1985), “시간 부사 ‘벌써’ ‘이미’와 ‘아직’의 상과 통사 제약”, 《한글》 189, 한글학회, 87-112.

김차균(1999), 《우리말의 시제 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김태인(2014), "한국어 부사 ‘잘’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나은영(2002), “‘방금’과 ‘금방’의 의미 고찰”, 《태릉어문연구》 10,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5-97.

남기심(1972), “현대 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

남기심(1978),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국어학 연구 선서 6》, 탑출판사.

모승환(2012), “한국어 시간 부사 ‘아직’ ‘여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병렬(2015), “감정과 문법: 감정표현과 관련된 문법적 의미 · 기능에 대하여”, 2015년 한국어의미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문.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범주》, 태학사.
문숙영(2009), “시제의 의미 및 사용과 관련된 몇 문제”,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27.
문숙영(2014), “상 범주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몇 문제”, 《진단학보》 120, 진단학회, 129-159.
민현식(1989), “중세국어 시간 부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현식(1990), “국어의 시상과 시간 부사”, 《국어교육》 6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5-42.
박소영(2003),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정은(2010), 한국어 양태 표현 부사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석사학위 논문.
박진호(2011ㄱ),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박진호(2011ㄴ),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사회》, 언어와 정보학회, 1-25.
서정수(1975), 국어부사류의 구문론적 연구, 남기심 외 공편, 《현대국어문법》, 계명대학교 출판부, 67-98.
서정수(1978), 《국어구문론연구》, 탑출판사.
서정수(1995),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신현숙(1986),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안명철(1983), “국어의 양상 연구”, 《국어연구》 56, 국어연구회.
양해승(2015),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염재일(2014), “상부사 ‘아직’, ‘이미’, ‘벌써’의 의미와 화용 비교”, 《어학연구》

50(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669-695.
엄정호(1986), 《추측과 원망, 국어학신연구(약천김민수교수화갑기념)》 , 탑출판사. 411-422.
엄정호(1995), 《인식 양태 부사의 의미, 기곡 강신항박사 정년퇴임기념 국어국문학논총》 , 태학사, 299-314.
우창현(2003),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 한국문화사.
우창현(2003), “문장 차원에서의 상 해석과 해석 규칙”, 《국어학》 41, 국어학회, 225-247.
이기갑(2006), “한국어의 양태(modality) 표현: 언어 유형론의 관점에서”,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67-83.
이기용(1998), 《시제와 양상: 가능세계 의미론》 , 태학사.
이남순(1995), “'겠'과 ‘ㄹ것’의 판단론”,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이남순(1998)에 실림, 185-202.]
이남순(1998), 《시제 · 상 · 서법》 , 월인.
이병기(2006),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주(2014), “초점 연계사 ‘아직’의 의미와 분포에 관하여”, 《어학연구》 50(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15-735.
이원표(1992), “시간 부사 ‘이제’의 담화기능”, 《인문과학》 68,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5-137.
이익섭(1978), “상대 시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67-376.
이인성(1986), “‘금방’과 ‘방금’의 의미”, 《태릉어문연구》 3,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
이정민(1997), 《서법(mood)/양상 표지의 습득, 김영주외(1997), 언어학이론과 한국어 의미,통사 구조 습득》 , 민음사, 73-101.
이지영(2010), “‘아직’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9, 국어학회, 103-129,
이효상(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 체계 분석”,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207-250.

이후인(2015), “한국어 양태-접속 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27-153.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체계”,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임서현(1999), “한국어 상부사의 쌍대성에 관한 연구: ‘이미’와 ‘아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유종(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임채훈(2003), “시간 부사의 문장의미 구성”,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55-170.
林采勳(2009), 事件 好否 評價 樣態性 表現 硏究: 意味 體系 設定 및 表現 項目 提示를 中心으로, 《語文硏究》 37-2, 55-81.
장경희(1982),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국어학회, 89-115.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한국언어학회, 191-205.
장경희(1998), 《서법과 양태, 서태룡외편(1998),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261-303.
장석진(1973), “시상의 양상: 「계속」·「완료」의 생성적 고찰”, 《어학연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8-72.
장채린(2013), “시간 부사 ‘이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42, 한국어의미학회, 269-295.
전영철(1998), “Aspectual Adverbs and Donkey Anaphora”, 《언어학》 23, 한국언어학회, 165-187.
정동경(2013),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일영(1995), “국어 양태소의 의미기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일영(1998), “국어 선어말어미의 양태적 의미 고찰”, 《한국어학》 8, 한국어학회, 39-66.

최규련(2005), 《국어의 초점사 현상 - 의미와 기능 분석》, 한국문화사.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석재(2008),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127-159.
최석재(2009), "감정동사의 정도성 추정 연구", 《한국어정보학》 11(2), 한국어정보학회, 96-105.
최석재(2015), "감정 표현의 어휘론- 화자의 견해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본 감정과 감정어-", 2015년 한국어의미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문.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한동완(1984), "현대국어 시제의 체계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 《민족문화연구》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23-245.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rie, B.(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unHee Lee(2008), Aspectual and focus adverbs in English and Korean,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Vol.26, 339-358.
Hoepelman, J., & Rohrer, C.(1981), Remarks on noch and schon in German. In P. Tedeschi & A. Zaenen(Eds.), *Syntax and semantics, Tense and aspect*(Vol. 14), New York: Academic Press. pp.103-126.
Huang, Y.(2007), *Pragma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해윤 역(2009),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Israel, M.(1995), The scalar model of polarity sensitivity: The case of aspectual operators. In D. Forget, P. Hirschbüler, F. Martineau, &

M.-L.(Eds.), *Negation and polarity, Riverto;* John Benjamins Publishing, pp.209-229.

Klein(2001), 《언어와 시간(*Time in Lanugage*)》, 신수송 역, 역락.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익환·권경원 역(1993), 《화용론》, 한신문화사.

Löbner, S.(1989), German schon-esrt-noch: An integrated analy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167-212.

Löbner, S.(1999), Why German schon and noch are still dual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45-107.

Lyons, J.(1977), *Semantics Ⅰ·Ⅱ*,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chaelis, L.(1993), Continutiy within three scalar models: the polysemy of adverbial still, *Journal of Semantics* 10, 193-237.

Michaelis, L.(1996), On the meaning of use of alread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9, 477-502.

Mittwoch, A.(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n/already and noch/still: A reply to Löbner, *Natural Language Semantics 10*, 193-237.

Morrissey, M.D. (1973), "The English perfective and 'still'/'anymore'", *Journal of Linguistics* 6, 65-70.

Palmer, F.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essaert, H., & ter Meulen, A. G. B.(2004), Temporal reasoning with aspectual adverb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209-261.

Smith, C.S.(1997)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Traugott, E. C. & Waterhouse, J.(1969), "'Already' and 'yet' : a suppletive set of aspect-marker?", *Journal of Linguistics* 5-2, 287-304.

van der Auwera, J.(1993), Already and still: Beyond dualit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613-653.

van der Auwera, J.(1998), Phrasal adverbials in the languages of Europe, In J. van der Auwera & D. P. Ó. Baoill (Eds.),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25-145.
Venderl, Z.(1987),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emantics of Korean Adverb class of 'Imi' and 'Acik'

Park, Hyese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mainly to explain the meaning of 'Imi' and 'Acik' Korean adverbs, and secondly discuss about 'Pelsse', 'Cincak' and 'Yeoceoni', 'Yetay' which are synonym group of 'Imi', and 'Acik'.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ynonym group of 'Imi' and 'Acik'. There are many studies which have been researched about individual synonym adverbs of 'Imi' and 'Acik', but it is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their synonym group. For that reason, I have sorted out the synonyms of 'Imi' and 'Acik' and called it the class of 'Imi', and the class of 'Acik'.

In regard to the 'time' study in linguistics, it has been researched on that there are two categories in tense and aspect according to their grammatical and semantic meaning. The study of time adverb also have been studied in the same categories, which are tense-related and aspect-related categories.

Based on the semantic and functional standards, the class of 'Imi' has been known as 'perfect aspectual adverbs'. On the other hand, the class of 'Acik' has been referred to 'imperfect aspectual adverbs'. However, the difference meaning of each adverb has been only mentioned in to their aspectual meaning in several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adverbs, which have been called as 'aspectual adverbs', it also has another meaning, which are related to 'modality'.

Thus, this study aims to clarify ou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for 'Imi' and 'Acik' that functions not only as aspectual verbs but also modal-related adverbs.

In this pap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dverb class of 'Imi' and 'Acik', could be explained as 'emotional modality' was known as subcategories of modality.

The class of 'Imi', which has the same aspectual meaning as 'perfect', has a standard that is called as 'event ended point'. However, each adverb has a different modal-related meaning.

'Imi' takes a neutral attitude in regard to the event end point. On the other hand, 'Pelsse' takes a surprising statement for the event end point. However, 'Cincak' takes regrets in regard to the event came too late.

Meanwhile, the class of 'Acik' has 'imperfect' aspectual meaning. They are focused on the 'event continuity'. 'Acik' takes a neutral attitude in regard to continue the event. In Contrast to 'Acik', 'Yeoceoni', takes expectations and hope to the event. on the other hand, 'Yetay' takes negative reactions and resentment in continuation of the event.

The meaning of adverbs are various and changeable.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each adverb in the future, the meaning of class of 'Imi' and 'Acik'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for aspectual meaning but also for emotional modal-related meaning.

Key Words: adverb, aspect, modality, time adverb, aspectual adverb, emotional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Student Number: 2014-20079